

제주도 김매는 노래 연구

이를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提出者 姜 性 均

指導教授 金 榮 敦

1986年 月 日

姜性均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主審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인

副審 인

副審 인

1986年 月 日

目 次

I. 序 言	1
II. 位 相	3
III. 傳 承 斗 分 布	18
IV. 唱 法 斗 機 能	24
1. 唱 法	24
1) 先 後 唱	25
2) 交 唱	27
2. 機 能	31
V. 內 容	37
1. 作 業 實 態	37
2. 日 常 情 意	39
VI. 俗 談 斗 의 交 流	50
VII. 結 語	54
o 參 考 文 獻	56
o Abstract	59

I. 序 言

〈김매는 노래〉는 〈논매는 노래〉와 〈밭매는 노래〉로 나누어지는데, 제주도의 〈김매는 노래〉는 本土와는 달리 〈밭매는 노래〉를 이르게 된다. 그것은, 제주도의 총 면적 중 밭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23.06%이고, 논은 0.51%, 과수원 4.94%, 나머지는 임야 및 기타로¹⁾ 耕作이 가능한 토지 중에서 밭이 약 81%라는 耕作地의 여건상 특수성 때문으로 여겨진다.

한편, 이와 같은 토지의 특성은 도민의 생활을 밭 농사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밭 농사의 主流는 보리와 여름철의 조 농사인데, 제주도의 Monson的 高溫多濕으로 인하여 그 成敗는 雜草와의 싸움에 달려 있다. 김매는 작업은 農作業 中에서 가장 고된 작업의 하나이다. 한여름철 曝陽 아래서 세 벌씩이나 김을 매야 하는 고역스러움은 경험하지 않은 자로선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고통스러운 작업이다. 이것은 주로 여인들에 의해 집단으로 행해지는데, 제주도민으로선 큰 고역이었다. 이렇게 고통스럽고 피할 수 없는 김매기 작업 속에서 이루어진 노래가 勞動謠인 제주도의 〈밭매는 노래〉, 곧 〈김매는 노래〉이다. 그러므로, 제주도의 〈김매는 노래〉는 도민의 生活情緒·삶의 슬기와 生活樣式·存在의 實相 등을 사설 속에 그대로 反映하고 있다.

都市化가 促進되고 전승의 基盤인 보리와 조 농사가 점차 特用作物로 바뀌고 있으며, 대중 음악의 범람으로 〈김매는 노래〉는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 선인들의 생활 정서와 전통 문화를 이해한다는 측면에서도 실로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여기에 자료의 수집과 연구의 時急함이 요구된다. 따라서 本稿는 〈김매는 노래〉의 자료 수집과 정리를 비롯하여 문학적·민속학적 접근 방법으로 〈김매는 노래〉의 位相, 傳承과 分布, 唱法, 機能, 다른 장르와의 交流樣相 등을 考察하여 그 實相을 밝힘으로써 노래 속에 容解되어 있는 제주도민의 삶과 정서를 把握하

1) 제주도, 「제주도통계연보」(제주도, 1983).

고, 아울러 기록 문학 연구의 자료를 제공함은 물론, 勞動謠 研究의 한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에 濟州島 民謠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지만, 구체적인 謠種別 研究은 아직도 未洽하다. 더구나 <김매는 노래>에 관한 연구는 全無한 실정으로, 濟州島 勞動謠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볼 때 그 연구가 時急하며, <김매는 노래>의 考察을 통하여 앞으로 민요의 종합적 연구와 자료의 보존에 이바지하려함도 本稿의 또 하나의 意義라 하겠다.

本稿에 이용한 자료는 既存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²⁾, 제주도 일원에 걸쳐 1982년 8월과 1983년 6월부터 9월까지 필자가 현지 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160여 편을 統計와 考察의 對象으로 삼았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整然하지 않은 것이 많았고, 전승 과정에서 變異되어 唱者도 그 의미를 잘 모르는 사실을 노래하는 경우도 있어 이의 해석에 誤謬가 있을 것임을 否認할 수 없다. 또, 한 사람의 唱者가 한 편의 민요 속에 여러 갈래의 내용이 담긴 사실을 노래한 경우는 내용에 따라 各篇으로 나누었으며, 다른 勞動謠와 交流되어 불리어지는 사실도 전 편이 아닌 경우는 <김매는 노래>로 分類, 引用하였음을 밝혀 둔다.

-
- 2) 金榮敦, 「濟州島民謠研究 上」(潮閣, 1965).
 秦聖麒, 「南國의 民謠」(正音社, 1979).
 曹喜雄, 「韓國口碑文學大系 1-1」(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0).
 徐大錫, 「韓國口碑文學大系 1-2」(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0).
 曹喜雄, 「韓國口碑文學大系 1-4」(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1).
 成善說, 「韓國口碑文學大系 1-5」(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1).
 曹喜雄, 「韓國口碑文學大系 1-9」(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4).
 徐大錫, 「韓國口碑文學大系 2-2」(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1).
 徐大錫, 「韓國口碑文學大系 2-6」(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4).
 金榮振, 「韓國口碑文學大系 3-4」(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4).
 朴桂弘, 「韓國口碑文學大系 4-2」(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1).
 崔來沃, 「韓國口碑文學大系 5-1」(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0).
 池春相, 「韓國口碑文學大系 6-2」(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1).
 金承璨, 「韓國口碑文學大系 6-3」(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4).
 崔正如·姜恩海, 「韓國口碑文學大系 7-4」(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0).
 鄭尙埈·柳鍾穆, 「韓國口碑文學大系 8-1」(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0).
 鄭尙埈·柳鍾穆, 「韓國口碑文學大系 8-2」(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0).
 崔正如·姜恩海, 「韓國口碑文學大系 8-5」(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1).
 玄容駿·金榮敦, 「韓國口碑文學大系 9-1」(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0).

II. 位 相

民謠는 특정한 계층이나 개인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니고, 과거로부터 民衆들의 생활의 共鳴下에 自然發生的으로 導出된³⁾ 것이기에 그 성격이 매우 民衆的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唱者 스스로의 필요성에 의해, 스스로 즐기기 위해서 부른다는 점에서 機能的이며, 聽者가 필요없이 唱者만으로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自足的인 성격의 노래이다.⁴⁾ 그러면서도 歌唱되는 지역의 民衆生活 全般과 직결된다는⁵⁾ 점에서 民謠의 위치와 그 모습을 짐작할 수 있는데, <김매는 노래>의 位相도 이와 같은 側面에서의 把握이 가능하게 된다.

民謠가 民衆生活의 영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이라면, 삶을 영위하는 기본적인 수단은 노동이었기 때문에 勞動謠가 민요의 本源을 이룬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다. 人智가 발달되지 않아 本能的인 삶을 영위하였던 과거의 생활은 육체적 노동에 依存하였고, 그 피로를 輕減시키기 위하여 몸의 움직임은 자연스레 律動的으로 變貌했을 것이다. 律動的인 움직임은 단순한 반복의 감탄사적 소리를 유발시켰다. 노동의 피로움을 輕減시키고 작업을 統制하기 위한 단순하고 무의미한 감탄사적 소리에 抒情性이 加味되고, 집단이 바라고 共感하는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서 문학적인 내용을 이루게 되었다. 민요는 노동에서 발생되었고⁶⁾, 민요의 시작은 勞動謠인 셈이다. 넓은 의미에서 민요로서 勞動謠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⁷⁾ 그만큼 민요에서 勞動謠가 차지하는 위치는 대단한 것이다. 특히 本土에 비해서 문화적으로 未開拓地인 제주도는 勞動謠가 絶對多數를 차지하고 있다.⁸⁾

3) 任東權, 「韓國民俗學論攷」(集文堂, 1901), p. 21.

4) 張德順外 3人, 「口碑文學概說」(一潮閣, 1976), pp. 75~76.

5) 金榮敦, “濟州島民謠研究”, 「韓國言語文學」 제5집(한국언어학회, 1977), p. 123.

6) 鄭東華, 「韓國民謠의 史的 研究」(一潮閣, 1981), p. 151.

7) 金榮敦, “제주도 민요에 드러난 생활관”, 「知愚 邊時敏博士 回甲紀念論文集」(同刊行委員會 1978), p. 464.

8) 金榮敦, “제주도 민요연구”, 「韓國言語文學」 제15집(韓國言語文學會, 1977), pp. 132~135.

제주도의 勞動謠 가운데 〈김매는 노래〉는 제주도의 특수한 여건, 다시 말해서 밭 농사가 생활의 中心을 이루고 있다는 점과 그 成敗가 김매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으로 해서 〈땀눈·방아노래〉·〈해녀노래〉와 함께 제주도 勞動謠의 根幹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그 位相을 밝히는 일은 다른 勞動謠의 綜合的인 分析과 함께 考察되어야 할 것이나, 本稿에서는 濟州島 勞動謠의 분류를 통하여 그 量的인 면을 살피고, 김매기와 노래와의 관계 등을 살핌으로써 位相을 대신하고자 한다.

〈김매는 노래〉는 ‘사디(사데)소리’라고도 하는데, 지방에 따라선 ‘더럼소리’(남원읍 하예리 중심)라고 하는 곳도 있다. 이것은 모두 ‘어긴요랑 사데야’ ‘어기여랑 사아디야’ 또는 ‘어야두리야 더럼마야’라고 하는 후렴에서 緣由된 명칭이라 하겠다. 특이한 경우론, 그 根據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웨기 소리’(성산읍 난산리), ‘홍애기 소리’(성산읍 난산리, 표선면 성읍리 중심)라고도 부르나 사실은 〈김매는 노래〉와 다를 바가 없다. 한편 남원읍, 표선면, 성산읍 일부 지역에서 唱民謠라고 할 수 있는 ‘서우젯소리’의 가락이 〈김매는 노래〉 속에 流入되어 〈김매는 노래〉의 사실과 함께 불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가락이 빼어나 흥을 돋우기 위해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음악상의 先例가 先例되지 않아 本稿의 論議對象에 선 제외시켰다.

〈김매는 노래〉는 가락에 따라 ‘진사디(진 사디)’ ‘쫓른사디(쫓른사디)’로 나누어진다. ‘진사디’는 대체적으로 가락이 느리고, 사실의 내용상 民間의 情意와 作業 實態를 노래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고, ‘쫓른사디’는 템포가 빠르고, 作業의 實態나 과정을 노래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진사디’의 경우 후렴만 反復하는 경우와 사실과 후렴을 함께 부르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음도 지적할 만하며, ‘쫓른사디’는 후렴만을 반복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音樂的인 선행 연구가 있어야 명확한 분석이 이루어지겠지만, 일을 시작할 때나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 심리적으로 안정되었을 때 불리는 것이 가락이 느린 ‘진사디’이다. 일을 시작할 때는 주로 후렴을 반복하여 흥을 돋우고, 단조로움과 지리함을 느낄 때 ‘진사디’의 사실로 넘어 가게 된다. 이것은 民謠가 일정한 目的意識보다는, 주로 개인적 또는 집단적인 感興의 발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사디’는 가락이 悠長하며, 내용이 整然한 사실이 계속된다. ‘쫓른사디’는 주로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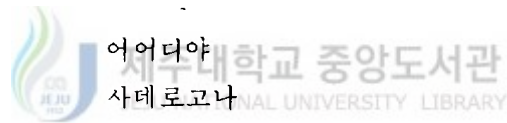
업의 실패나 과정을 노래하는데,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작업의 督勵를 위해서, 또는 김매는 작업 자체에 沒入되었을 때 불리어진다. 노래는 동작에 영향을 받고, 동작은 노래에 의해서 統一을 이룬다. 가락은 동작을 統制하고 사설은 감정을 노래하며, 후렴은 동작과 노래의 통일을 가져오는 것이다.

- | | | |
|---|------|--------------------|
| ① | 아침사던 | 늦어도 좋곡 |
| | 대낮사던 | 방울방울 |
| | 저녁사던 | 즈직즈직 ⁹⁾ |

語釋 아침사던는 늦어도 좋고
 대낮사던는 병긋병긋
 저녁사던는 자주 자주

- | | | |
|---|------|-------|
| ② | 어긴여랑 | 어어디야 |
| | 어긴여랑 | 어길도리야 |

어긴여랑
 어긴여랑



어어디야
 사테로고나

어긴여랑 어어디야
 어긴여랑 어길도리야
 어긴여랑 어어디야
 어긴여랑 사테로고나
 어긴여랑 사아테야
 어긴여랑 사아테야

(필자채록, 성산읍 난산리, 김묘생, 女·78)

- | | | |
|---|------|--------|
| ③ | 어긴여랑 | 사테로고나 |
| | 사테불렁 | 요검 질메게 |

9) 金榮敦, 「제주도민요연구 上」(一潮閣, 1965), 1040번의 자료.

앞명에랑	들어나오라
뒷명에랑	물러나사라
어긴여랑	사데로고나
검질짓곡	끌너 른밭디
곶은쇄로	여의명가계
어긴여랑	사데로고나
우리ㄴ찌	나이가들엉
너를버칭	뒤물릴말가
어긴여랑	사데로고나
사데소리	노파나간당
사데불렁	매어나보세

(필자채록, 한림읍 동명리, 김경주, 女 · 78)

語釋 어긴여랑	사데로구나
사데불러	요김을매자
앞밭머릴랑	들어오라
뒷밭머릴랑	물러나라
어긴여랑	사데로구나
김질고	넓은밭에
곶은쇠(호미)로	해내여가자
어긴여랑	사데로구나
우리같이	나이가들어
너를힘에겨워	뒤로미물것인가
어긴여랑	사데로구나
사데소리	높아간다
사데불러	매어나보자

④ 어기여랑	사데로다
사데불렁	앞명에가계
뒷명에랑	멀어나지라
어기여랑	사데로다
일락서살	해지가전에

요밭검질	문메야 훔킬
어기여랑	사테로다
저기저해	지기전에
요앞멍에	고비돌자
어기여랑	사테로다
앞멍에야	들어나오라
뒷멍에야	무너나가라

(필자채록, 한림읍 금악리, 오문화, 女 · 57)

語釋	어기여랑	사테로다
	사테불러	앞밭머리 가자
	뒷밭머릴랑	멀어져라
	어기여랑	사테로다
	일락서산	해지기전에
	이밭김을	모두매어야할걸
	어기여랑	사테로다
	저기저해가	지기전에
	앞밭머리	곶이돌자
	어기여랑	사테로다
	앞밭머릴랑	들어오라
	뒷밭머릴랑	물리가라

⑤	앞멍에야	들어나오라
	뒷멍에야	무너나라
	어기요랑	사아디야
	어느제랑	저디갈코
	메염시문	흥여진다
	어기요랑	사아디야
	갈뉘보난	멀엇고나
	아명멀엄	저지경도
	서월보단	멀어시랴
	어기요랑	사아디야
	서월이야	멀다흔들

강남땅이	더멀더라
어기요랑	사아디야
강남땅이	멀다흔들
제비새이가	오고간다
어기요랑	사아디야

(필자재록, 한림읍 한림리, 고상옥, 女·79)

語釋 앞밭머릴랑	들어오라
뒷밭머릴랑	물러나라
어느때년	서기갈까
배고있으면	할수있다
갈곳은보니	멀었구나
아무리멀어	저지경도
서울보다	멀겠느냐
어기요랑	사아디야
서울이야	멀다고하지만
강남땅이	더멀더라
어기요랑	사아디야
강남땅이	멀다고하지만
제비새가	오고간다
어기요랑	사아디야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①의 노래는 일을 하는 시간에 따라 노래의 가락이 다름을 보여 주는 노래이다. 아침에는 노래의 가락이 느려도 좋다는 것은, 심리적인 압박에서 벗어나 여유 있는 마음가짐으로 일을 시작하자는 것이고, 저녁에 부르는 노래의 가락을 빠르게 한다는 것은 일을 서두르고 가락에 맞추어 작업의 동작을 더욱 빠르게 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김매는 노래>와 김매기의 作業實況과의 상관 관계, 그리고 ‘쫓른사디’가 불리어지는 상황도 이해할 수 있겠다. ②의 노래는 후렴만으로 된 ‘진사디’의 경우이며, ③④는 ‘쫓른사디’, ④는 비교적 시간적인 여유가 많을 때 불려지는 ‘진사디’이다. 김매기는 대개 정해진 목표량을 특별한 狀況變化 없이 같은 행

〈표1〉 노동요의 분류¹⁰⁾

구분	요별	요	종
高晶玉	男 謠	보리타작노래, 모심기노래, 나무꾼노래, 밧노래, 방아찝기노래, 꿀매기노래, 밭밟기노래, 풀무노래, 새날리기노래, 죽노래, 송구노래	
	婦 謠	베틀노래, 멧돌노래, 밭매기노래, 목화따기노래, 삼삼기노래, 물레노래, 바느질노래, 부엌노래, 빨래노래, 해너노래	
金榮敦	農業謠	따비질노래, 밭가는노래, 흙덩이바수는노래, 밭밟는노래, 김매는노래, 타작노래, 보리훑는노래, 마소모는노래	
	製粉謠	멧돌·방아노래, 연자매노래	
	漁業謠	해너노래, 멧노래, 멧목짓는노래, 멸치후리는노래	
	伐採謠	나무베는노래, 나무켜는노래, 나무쪼개는노래, 나무내리는노래, 꿀베는노래	
	冠綱謠	양태노래, 탕건노래, 망건노래	
	雜役謠	방앗돌굴리는노래, 토불미노래, 디딤불미노래, 똑딱불미노래, 짐줄놓는노래, 짚두드리는노래, 흙이기는노래, 집터다지는노래, 베틀노래	
任東權	男 謠	移秧謠, 김매는노래, 산유화요, 타괘요, 踏田謠, 樵夫謠, 밭가는노래, 곰배질謠, 달구질謠, 자귀질謠, 불무謠, 밭밟기謠, 톱질謠, 割木謠, 노짓는노래, 어부노래, 멧노래, 꿀매기노래, 가래질노래, 가마베는노래	
	女 謠	베틀謠, 밭베는노래, 멧돌노래, 길쌈노래, 물레노래, 빨래노래, 바느질노래, 양태노래, 망건노래	
張德順 外3		농업노동요, 도복노동요, 제분노동요, 어업노동요, 採取노동요, 수공업노동요, 운반노동요, 길쌈노동요, 가내노동요	
秦聖麟	男 謠	어부노래, 밭가는노래, 자귀질노래, 도끼질노래, 톱질노래, 불무노래	
	女 謠	해너노래, 멧돌노래, 방아노래, 베틀노래, 양태노래, 망건노래, 탕건노래	
	男女謠	밭밟는노래, 곰배질노래, 타작노래, 따비질노래, 김매는노래	

10) 高晶玉, 「朝鮮民謠研究」(首善社, 1949), p.495.

金榮敦, 「濟州島民謠研究」(도서출판조약돌, 1983), p.25.

任東權, 「韓國民謠集」(東國文化社, 1961).

위의 反復의 長時間 계속되는 작업으로, 심리적인 면과 시간적 측면 외의 다른 이유에서 오는 노래의 변화를 찾을 수가 없다.

제주도 <김매는 노래>의 후렴은, 2음보 1행, 또는 4음보 2행의 앞소리를 선창자가 노래하면 作業員 모두가 ‘어기요랑 사아디야(혹은, ~사테야)’, ‘어긴여랑 상사디야(혹은, ~상사테야)’, ‘어긴여랑 서와디야’ 등으로 받아 부르는데, 助興 이외의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이다.

<김매는 노래>가 제주도 노동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 노동요의 분류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민요의 분류는 일반적으로 통일된 방법이 없고, 학자에 따라 그 基準을 달리하고 있어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本稿는 노동요의 대표적인 분류를 살펴보고, <김매는 노래>라는 말 자체가 기능을 중심으로 한 것이기에 金榮敦님의 기능에 따른 제주도 노동요 분류 방법을 따르기로 한다.

노동요의 대표적인 분류는 표1과 같다.

표1의 金榮敦님의 분류에 따르면, 제주도의 노동요는 31종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 중에서 <김매는 노래>는 <따버질 노래>·<밭가는 노래>·<흙덩이 바수는 노래>·<밭밟는 노래>·<타작노래>·<보리훑는 노래>·<마소모는 노래>와 함께 농업 노동요로 분류된다. 논과 밭의 비율이 과거에는 50대1로 밭농사가 대부분이며, 전체 가구수에 비해 農家は 대략 83%를 차지하고¹¹⁾, 農土는 대부분 火山灰土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瘠薄한데다가 그 主食은 예로부터 보리와 조였다. <김매는 노래>는 이러한 狀況下에서 주로 여름철 조밭의 김을 매면서 부르는 노래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밭의 김매기가 농사의 成敗를 좌우한다면, <김매는 노래>는 제주도 노동요의 核을 이루는 노래 중의 하나라 아니할 수 없으며, 또한 다른 농업요에 비해 그 量도 월등하다.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年中 無休의 작업 속에서 이루어진 <맷돌·방아노

張德順外3人, 「口碑文學概說」(一潮閣, 1976), pp.82~83.

秦聖麒, 「南國의 民謠」(正音社, 1977).

11) 金榮敦, 「濟州島民謠의 特色」(濟州大學國語國文學研究室, 1964), pp.5~11.

래)·〈해녀노래〉에 비해선 그 구성비가 약하지만, 전체 노동요 중에서 〈김매는 노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看過할 수 없는 量이며, 농업요 중에서는 단연 首位임을 알 수 있다. 제주도 민요의 位相이 곧 제주의 個性이라면¹²⁾, 〈김매는 노래〉의 位相은 도민 생활의 個性을 파악하는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여성 노동요는 작업 장소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즉 屋內勞動과 野外勞動으로 분류되는데¹³⁾, 김매는 작업은 해녀 작업과 함께 여성 위주의 野外勞動이다.

〈표2〉 제주도 노동요 통계

자료 : 金榮敦, 《濟州島民謠研究 上》

구분 요 별	편 수	구 성 비
맷돌·방아노래	815	71.4
해녀노래	199	17.4
김매는노래	44	3.9
타작노래	28	2.45
망건노래	6	0.5
양태노래	6	0.5
밭밟는노래	18	1.6
꿀베는노래	8	0.7
멀치후리는노래	6	0.5
훈덩이바수는노래	3	0.26
나무쫓개는노래	1	0.09
나무베는노래	3	0.26
나무켜는노래	1	0.09
베틀노래	3	0.26
탕건노래	1	0.09
계	1,142	100

12) 金榮敦, “제주도 민요의 위상”, 『교육제주』 제18호(제주도교육위원회, 1972), pp. 67~77.

13) 任東權, 『韓國婦謠研究』(集文堂, 1982), p. 224.

내리쬐는 曝陽아래 여름철의 밭고랑에 쪼그리고 앉아 행해지는 김매기는 인내와 끈기를 요구하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작업이다. 여기에서 이루어진 <김매는 노래>는 제주 여인들의 고통스러웠던 지난 날의 역사를 담고 있으며, 이 점에서도 다른 노동요와 그 位相을 달리한다.

<김매는 노래>의 位相을 파악함에 있어 좀더 가까이 접근하기 위해서 사설의 내용 분류가 또 하나의 중요한 측면이 될 것이다. 사설을 분류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기능을 중심으로 하느냐, 단순히 사설에 담긴 내용만을 위주로 하느냐인데, 本稿는 내용과는 관계없이 기능을 위주로하여 그 사설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⑥ 일락사산	해뻬어셔도
집생각을	안하는것은
지드리는	남이웃연
우리님은	어딜가고
남지드림줄	모르더냐



語釋 일락사산	해뻬어셔도
집생각을	안하는것은
기다리는	남이없기에
우리님은	어딜가고
남지드림줄	모르더냐

윗 노래의 경우 사설의 내용만을 이야기한다면 <前情謠>에 해당할 것이나, 기능을 위주로 한다면 사설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김을 매면서 부르는 이 노래는 <김매는 노래>이다.

노동요에서 사설의 내용은, 노동의 實態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노동의 일반적인 내용이나 진행 과정을 노래하는 사설로 된 경우, 노동 실태와는 관계없이 노동하는 者의 感情이나 意識을 노래하는 경우의 두 측면이 있다.¹⁴⁾ 野外勞動으로

14) 張德順外3人, 「口碑文學概說」(一朝閣, 1976), pp. 84~85.

노동과 密着되어 即興的이며 거칠고 고통스러워 다른 마음의 여유를 가질 겨를이 없는 노동인 경우는 대부분 전자에 속하고, 屋內勞動이며 비교적 여유있는 노동의 경우는 후자에 속한다.

〈표3〉 제주도 노동요의 사설내용분석¹⁵⁾

구분 내용	노동요 全 般		맷돌·방아 노 래		海女노래		김매는 노 래		타작노래		기 타 노동요	
	篇 數	構 成 比	篇 數	構 成 比	篇 數	構 成 比	篇 數	構 成 比	篇 數	構 成 比	篇 數	構 成 比
勞 動 實 態	240	21	27	3.4	102	51.3	34	77.4	26	92.8	51	91.2
民 間 的 情 意	902	79	788	96.6	97	48.7	10	22.6	2	7.2	5	8.8
計	1,142	100	815	100	199	100	44	100	28	100	56	100

표3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屋內勞動인 경우의 〈맷돌·방아노래〉를 제외한 다른 노동요인 경우는 노동의 실태를 노래한 사설의 비중이 월등히 앞선다. 김매는 작업은 한 번에 큰 힘이 들거나, 타작이나 해녀 작업과 같이 기친 노동은 아니다. 그러나, 野外에서 봄부터 여름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개는 짙은 더위와 나는 듯한 밭고랑에 앉아 마른 땅에 단단히 뿌리박은 雜草를 뽑아내야 한다. 더구나 穀草와 雜草를 구분해서 뽑아야 하는 작업으로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김매는 노래〉의 사설은 작업의 실태나 과정을 노래한 내용이 情意를 노래한 것보다 앞선다.

필자가 조사한 〈김매는 노래〉의 사설 내용을 보이면 표4와 같다.

〈표4〉 〈김매는 노래〉의 사설 내용 분석

자료: 필자 조사

內容 區分	作業實態	情 意						計
		삶의哀歡	勤 勉	愛 情	警 世	家 族	協 同	
篇 數	121	23	5	6	2	5	3	165
構 成 比	73.3	13.9	3.0	3.6	1.2	3.0	1.8	100

15) 金榮敦, 「濟州島民謠研究」(도서출판 조약돌, 1983), p. 28.

이 분석을 통하여 볼 때 작업 실태나 과정을 노래한 것은 73.3%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質量 兩面에서 제주도 민요의 으뜸이라 할 수 있는 <맷돌·방아노래>와의 대비를 통해서 그 이유를 파악할 수 있다.

<맷돌·방아노래>는 첫째, 작업 자체가 屋內作業으로 집안의 정해진 장소의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조용하게 이루어지고, 둘째, 少數의 人員이 차분한 狀況에서 가다듬어진 가사를 熟考, 鑑賞하며 부를 수 있다.¹⁶⁾ 또한 작업 동작이 비교적 여유가 있고, 年中 며칠에 한 번씩 이루어졌기 때문에 民間의 情意를 노래한 사실이 압도적인데 비해, <김매는 노래>는 첫째, 고정된 장소가 아니라 거친 들판에서 動的으로 행해지는 野外勞動이다. 둘째, 작업 자체는 개인적이면서도 전체적인 작업 과정은 여러 사람이 함께 보조를 맞추어 행해지며, 지겨운 노동으로 歌詞를 가다듬어 부를 여유가 적다는 것이다. 셋째, 年中 행해지는 노동이 아니고, 주로 무더운 여름철에 이루어지는 노동으로 整然한 사실의 전승이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노동 실태를 노래한 것과는 달리 情意를 노래한 많지 않은 사실 속에는 평소 불리어지던 <맷돌·방아노래>등이 聯想作用을 일으켜 그 交流에 의해서 <김매는 노래>의 사실이 형성되는 경우도 발견된다. 이로 인하여 <맷돌·방아노래>와 <김매는 노래>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은 사실도 있음을 특이한 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⑦ 나거든에	삼성제나라
나거든에	초성제나라
전생팔재	얼마나하민
비온날에	왜상제홀듯
흔젯검질	웬말이나

(필자채록, 한림읍 한수리, 홍여순, 女·64)

語釋 나거들랑	삼형제 나라
나거들랑	사형제 나라
전생팔자	얼마나하면

16) 金榮敦, “제주도민요 맷돌·방아노래” 『國語國文學 82』 (國語國文學會, 1980), pp. 26~27.

비오는날에
혼자김이

외상주울듯
웬말이나

방점의 사실은, <맷돌·방아노래>의 구절로 <김매는 노래>와 <맷돌·방아노래>의 交流를 보여 주고 있다. <김매는 노래>와 <맷돌·방아노래>는 몇 가지 이유 때문에 넘나들 수밖에 없다. 첫째, 그 형태가 類似하다는 점이다. 4.4 또는 4.5調를 1행으로 하여 2행이 내용의 한 단위를 이루며, 노래가 시작되거나, 행 또는 내용의 한 단위가 끝날 때마다 후렴이 이어진다. 둘째, 맷돌·방아 작업이 제주도 여성들의 주된 노동이었으며, 김매기 또한 여성 위주로 행해지기 때문에 일의 種類가 바뀌었다고 해서 평소의 感情이나, 思想·言語의 내용이 달라질 수 없다는 것이다. 셋째, 김매기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와 식사거리를 장만하는 맷돌·방아 작업과 김매기의 相互 連續性이다. 넷째, 동작의 폭이 類似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全편의 交流는 드물고, 한두 구절이 서로의 노래에 끼어들어 交流되는 경우가 흔하다. 김매기가 年中 無休로 행해지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늘 끼어드는 慣用句的인 사실이나, 작업과 密着된 사실이 아닌 경우는 記憶의 문제로 <김매는 노래>만의 獨特한 사실의 形成이 <맷돌·방아노래>에 비해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늘 부르던 <맷돌·방아노래>의 가사는 김매기 작업 속에서 되살아나 그 구절이 끼어들게 되는 것이다. 노동요의 성격상 작업의 성질이나 동작이 아주 다른 경우가 아니거나, 日常의 감정을 노래하는 사실의 경우는 작업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어느 일에서나 交流되어 불리게 마련이다.

한편, 제주도 <김매는 노래>의 位相을 보다 鮮明히 하기 위해선 다른 지방 민요, 특히 <김매는 노래>와의 관계를 살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韓國口碑文學大系」의¹⁷⁾ 자료를 檢討해 본 결과로는 특별한 交流現象을 찾아 볼 수 없었다. 다만 交流되었음직한 몇 구절이 있을 뿐이었다. 여기에 옮겨 본다.

“은가락지나 찌던 손이 호미 자루가 웬말인가”¹⁸⁾

17) 註2의 「韓國口碑文學大系」.

18) 金榮敦, 「濟州島民謠研究 上」 (一潮閣, 1965), 1038번의 자료.

徐大錫, 「韓國口碑文學大系 2-6」 (강원도 황선군편)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4).

“얼대야 사람 듣기나 좋자 가까운 데 사람은 보거나 좋세”¹⁹⁾

“시마지키~남매마가 반달만큼 달았구나”²⁰⁾

극히 제한된 몇 구절만이 交流되고 있음은 지리적인 與件으로 조선 시대까지만 해도 本土와의 交流가 흔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은가락지~웬말인가”라는 구절은 시집살이를 하는 여인들의 보편적인 심리적 共感帶 위에서 나타나는 交流現象이다. 남세주군 표선면 성읍리는 과거 縣廳所在地였는데, 유독 이 지방의 노래 중에 “시마지키~남아간다”라는 노래의 구절이 제주도의 <김매는 노래> 속에 끼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은 관리들을 따라 온 衙前들에게서 들은 노래의 구절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라 여겨진다. 제주도의 <김매는 노래>와 本土의 그것과 비교해 볼 때 특이한 현상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本土의 경우 지방에 따라 명칭이 가지각색이라는 점이다.

경 기 도 — 본매는 노래 : 면쟁이, 물레, 미나리, 긴방아 타령, 상사소리, 옥두새,
찍었네소리, 찍었네야, 대호리, 오호이, 단호리.

서울특별시 — 본매는 노래 : 산타령, 방개타령
— 발매는 노래 : 상사소리

강 원 도 — 발매는 노래 : 밭아리(미나리)

전 라 남 도 — 발매는 노래 : 짚은방아타령

전 라 북 도 — 김매는 노래 : 들노래

명칭에서 보듯이 제주도의 <김매는 노래>가 固有性을 띠고 있음에 반해, 本土의 그것은 타령이나 遊戱謠가 <김매는 노래>로 불리는 경우가 많다. 이것으로 미루어 제주도의 <김매는 노래>는 獨自의이며 鄉土性을 지닌 노래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구비문학대계」의 자료(註2)를 통해서 보면, 本土의 <김매는 노래>

19) 金榮敦, 「濟州島民謠研究 上」(一潮閣, 1965), 1029면의 자료.

徐大錫, 「韓國口碑文學大系 1-2」(경기도 여주군편)(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0).

20) 필자채록, 표선면 성읍리, 조율선·女·69.

曹喜雄, 「韓國口碑文學大系 1-9」(경기도용인군편)(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0).

49편 중에서 제주도와는 달리 〈논매는 노래〉가 28편으로 〈밭매는 노래〉 21편에 비해 많고, 주로 〈논매는 노래〉의 경우 노동과 密着되지 않은 채 거리가 노래하는 이의 심정을 노래한다.²¹⁾

이상에서, 濟州島 勞動謠에서 〈김매는 노래〉가 차지하는 비중, 사실 내용의 분석, 交流의 樣相, 本土 〈김매는 노래〉와의 관계 등을 통하여 제주도 〈김매는 노래〉의 位相을 살펴 보았다.



21) 金榮敦, “민요의 기능과 사실”, 『韓國文學研究入門』(知識産業社, 1982), p.117.

Ⅲ. 傳承과 分布

〈김매는 노래〉는 제주도의 대표적인 民謠라 할 수 있는 〈맷불·방아노래〉등과는 달리 作業現場에서만 불리어지는 노래이다. 그 傳承實態와 分布狀況은 노래의 배경, 김매는 작업의 실제 파악을 통하여 이해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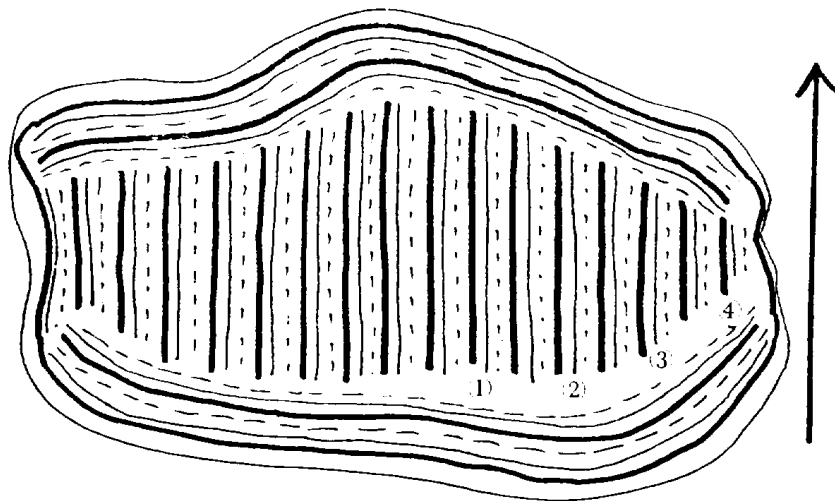
김매는 작업을 맷불·방아, 해녀 작업과 함께 제주 여성들의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일거리 중의 하나였다. 김매는 작업을 聚落의 형성과 風土的 環境에서 起因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聚落의 70% 이상의 海岸을 둘러싸고 이루어져 있고, 聚落들의 대부분은 農業과 漁業을 겸하고 있는 混業形의 마을들이다. 즉 농업에 못지 않게 어업도 生業의 많은 부분을 차지해 왔다. 해녀 작업이 아닌 그 이외의 漁業活動은 남성들의 주된 일거리이듯이 農事도 거칠고 힘든 작업인 따비질, 밭갈이, 모리 훑기 등을 제외한 다른 농사 일들은 여성들 차지였다. 더구나, 농사 일을 하다가도 出漁時間이 되거나 漁具를 손질해야 할 일이 있는 경우에 남성들은 어업 활동에 필요한 작업에 매달렸기 때문에 김매는 작업이 女性爲主의 일거리일 수밖에 없었음을 분별해진다.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 중산간 지역의 生業活動은 주로 농사를 통해지만 이루어져 왔는데, 여기에선 남성들이 김을 매는 모습을 직접도 간혹 볼 수 있으나, 해변 마을에서는 아수 드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김매는 노래〉도 해변 마을의 남성들은 후렴 정도를 기억하고 있거나 전혀 관심이 없는 것에 비해, 중산간 마을의 남성들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사설이나 가락을 많이 기억하고 있음이 조사 과정에서 밝혀졌음도 김매기가 女性爲主의 일거리였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제주도의 〈김매는 노래〉가 여성들에 의해 傳承되고 있음도, 이와 같은 脈絡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제주도는 중산부에 우뚝 솟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많은 側火山들이 솟아 있어, 그 地形이 해안까지 완만한 傾斜로 형성되어 있으나, 대부분 火山灰土로 地表가 透水性이 강하기 때문에 산에서 흐르는 물은 지하로 스며들어 하천은 거의 모두가 乾川이다. 그러므로, 과거 중산간 마을의 주민들은 飲料水難에 허덕여 왔으며, 한림읍 명왕리, 서귀포시 강성동, 원덕면 화술리 등의 약간의 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조와 보리, 그 외의 잡곡 위주의 밭농사로써, 조와 보리가 토민들의 主穀이었다. 조와 보리 농사에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김매기 작업이다. 適期에 雜草를 잘 뽑아 주어야만 농사가 잘 되게 마련이다.

김매기는 계절적으로 일정한 시기와 기간을 두고 반드시 행해진다. 보리의 김매기는 초 벌과 두 벌을 매는데 2월에 행해지고 조농사는 초 벌, 두 벌, 막음검질(마지막 김매기)의 세 번으로 나누어 대개 6월(음) 중순에서 7월(음) 하순까지 행해진다. 새벽이면 바닷가에 나가 밭의 거름을 위하여 파도에 밀려온 海草를 모았고, 해가 떠오르기도 전에 밭에 나가 굳은 땅의 잡초를 온종일 뽑아야 했다. 김매는 작업의 고동스러움과 지리함은, 내리쬐는 태양과 떠오르는 듯한 地熱 속에서 딱딱하게 굳은 땅의 잡초를 뽑아야 하는 조농사가 보리농사보다 훨씬 더하다. 따라서 <김매는 노래>의 대부분은 이 조농사의 김매기에서 口演되었고 傳承이 이루어졌다. 本島의 俗談에 “집안 직구가 모두 호미자루를 잡을 줄 알아야 그 집안 살림이 넉넉해진다.”는 말이 있듯이 제주도의 여성이라면 누구나 김매는 일을 하면서 살아왔다.

김매는 작업은 한두 사람이 하는 경우와 집단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노래의 口演과 傳承은 대체로 後者인 경우에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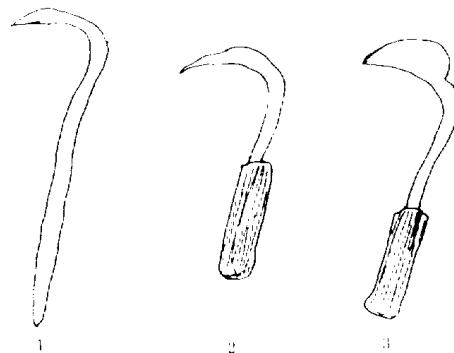


<그림1>²²⁾

22) 밭의 두둑과 고랑. 굵은 선은 두둑, 가는 선은 작은 두둑, 점선은 고랑, ↑는 김을 매어가는 방향

집단으로 김을 매는 경우 그림 1의 ①②③④와 같이 位置하고 뒷받머리를 먼저 매는다. ①은 ①~④ 중에서 나이가 많고 노래를 잘 하며, 작업 능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작업을 先導해 나간다. 이 때 ①을 ‘익은님’, ②③④를 ‘선님’이라고도 한다. ‘익은님’이라는 말은 작업 능력이 뛰어나다는 의미에서, ‘선님’은 그보다 서툴다는 뜻에서 유래한 말이라 여겨진다. ‘선님’ 중에서도 가장 느리고 서툰 사람은 가운데, 또는 ①에 위치하도록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가운데 위치하도록 한다. 김을 매는 방향은 지형이나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 결정되며 주로 바람을 안고 김매기를 한다. 앞받머리까지 한 번을 다 매고나면, 시작할 때의 출발점과 동일한 線上의 위치로 돌아와 원해의 ①②③④와 같은 대형으로 다시 일을 시작하는데, 돌아오면서 허리를 펴고 몸의 피로를 잠시나마 풀게 된다. 노래는 ①②③④의 위치에서 이랑을 매기 시작할 때 ‘익은님’이라는 先導者에 의해서 시작되며, 그가 사설을 先唱하고 ②③④는 後唱을 한다. <김매는 노래>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口演되며 傳承되었다. 뜨거운 밤이랑에 앉으면 저절로 ‘사디소리’(김매는 노래)는 흘러 나왔고, 해가 질 무렵 일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었다.

김을 매 때 使用하는 農器具는 ‘꼴갱이(호미)’이다. 瘠薄한 農土의 여건으로 그 기능에 따라 세 가지 종류로 발달하였다.²³⁾



<그림2>

그림 2의 ①은 ‘희미’라 하여 낫처럼 생긴 모양에다 날은 없으며, 주로 밭의 잡초를 뽑거나, 고사리 따위를 꺾는 데 사용한다. ②는 ‘꼴갱이’, ‘삼꼴갱이’,

23) 秦聖麒, 「民俗의 밭」(悅話堂, 1979), pp. 25~26.

‘섬곶쟁이’ 또는 ‘삼원곶쟁이’ 라고 하며, 날 부분이 훌쩍하면서도 긴 호미를 말한다. 주로 김을 매는 데 사용하며, 손잡이 부분은 나무로 되어 있다. ③은 ‘주곶쟁이’, ‘주구곶쟁이’ 또는 ‘주기곶쟁이’라고 하며, 날 부분이 쟁기의 보습 위엣과 같이 넘적한 호미를 말한다. 주로 흙을 긁어 모아 농작물을 북돋아 주는 데 사용한다. 역시 손잡이 부분은 나무로 되어 있다.

제주도는 地質的인 여건으로 말미암아 바위와 바위의 틈바구니에 농토가 있다. 이곳에서 생활해 온 도민들은 이 ‘곶쟁이’로써 瘠薄한 자갈밭을 일구며 그들의 삶을 노래하였다.

이렇게 들판의 김매기 현장에서 口演 傳承되었던 <김매는 노래>는 곡조와 후렴은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사실의 量的, 內容的 變化 속에 그 전승이 이루어져 왔는데, 완전히 동일한 各篇은 흔하지 않다. 이것은 傳承根源의 차이, 唱者의 차이, 사회적·시대적 환경의 차이, 노래하는 분위기에서 오는 차이로²⁴⁾, 傳承에 따라 사실의 量的인 增減과 부분적인 내용의 변화를 필연적으로 가져오기 때문이다.

傳承의 變化를 가져오는 요인 가운데, <김매는 노래>의 死活 與否를 두고 생각한다면, 환경의 차이에서 오는 변화가 傳承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김매는 노래>는 시대적 사회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口演의 기회가 적어 그 傳承이 중단되어가고 있는 상태에 놓여 있다.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남제주군 지역은 과수원으로, 북제주군 지역은 特用作物의 재배로 口演과 傳承의 현장인 조와 보리의 耕作이 상당히 적어지고 있다. 또한 과학 영농으로 김매는 작업의 기회는 줄어들고, 혹, 집단으로 김을 매는 경우가 있어도 현대적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김매는 노래>에 대한 관심보다는 대중 음악적 취향으로 변해버려, 그 傳承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老人들이나 과거의 기억을 되새기는 정도이다. 오늘날까지는 제주도의 어느 마을에서나 年老하신 할머니들로부터 <김매는 노래>를 들을 수 있으나, 생활 환경의 변화로 그 전승이 중단될 날도 멀지 않은것 같다.

24) 趙東一, 「叙事民謠研究」(啓明大學出版部, 1970), pp.127~129.

〈김매는 노래〉는 濟州島 全域에 分布되어 있다. 도민 전체가 대부분 농사를 지으며 살아 왔고, 제주도 여성이라면 누구나 김매기를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이다. 좀 특수한 경우로 〈나무베는 노래〉의 후렴인 ‘어아~어아~더럽마아’가 〈김매는 노래〉의 후렴으로 끼어들어, ‘더럽소리’라는 것이 남원읍 하예리를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이 노래는 제주도의 일반적인 〈김매는 노래〉(사디소리 혹은 사디소리와 곡조나 사설의 내용에 차이가 없고, 명칭도 ‘더럽소리’ 또는 ‘사디소리’라 한다. 또한 표선면 성읍리를 중심으로 ‘아아~아~양아양 예양에~용’의 후렴을 가진 ‘아웨기소리’라는 노래가 〈김매는 노래〉로 불리고 있으나, 이 역시 그 곡조만이 일반적인 ‘사디소리(김매는 노래)’와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아웨기소리’의 사설을 보면

⑧ 앞밭에야	들어오라
뒷밭에야	나코나가라
서마지기	논두렁이
반달만이	남아나간다

(원자재복, 표선면 성읍리, 조을선, 女·70)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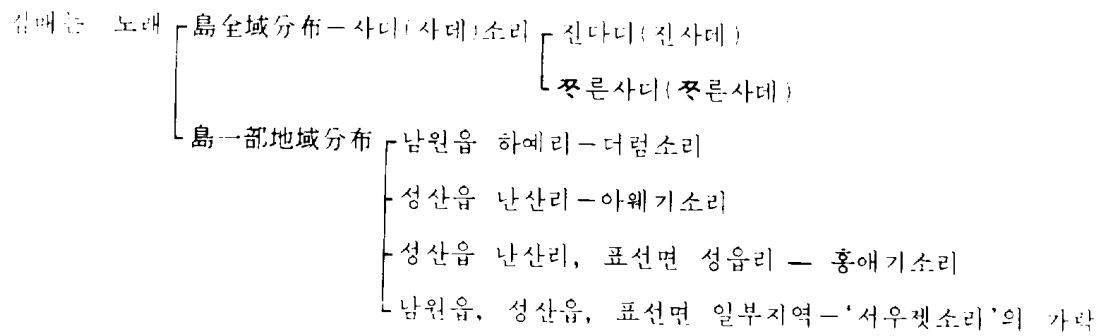
語釋	앞밭머릴랑	들어오라
	뒷밭머릴랑	나아가라
	서마지기	논두렁이
	반달만큼	남아간다

‘논두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 본래 논이 없어 순수한 밭농사 뿐으로, ‘논두렁이’란 말이 나오는 것은 과거 朝鮮時代의 縣廳所在地였다 는 것을 勘案한다면 본토에서 들어온 노래가 뒤섞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지만, 앞으로 보다 철저한 조사와 분석이 따라야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홍애기 소리’가 성산읍 난산리, 표선면 성읍리에 〈김매는 노래〉로 분포되어 있으며, 남원읍, 성신읍, 표선면 일부 지역에서 ‘서우젓소리’의 가락이 〈김매는 노래〉의 사설과 함께 〈김매는 노래〉로 불리고 있다.

위에서 지적했듯이 〈김매는 노래〉는 濟州島 全域에 分布되어 있는데, ‘사디 소

리'가 가장 일반적이며, 그 主類를 이룬다.

그 分布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IV. 唱法과 機能

民謠는 가락을 떠나선 존재할 수 없다. 더구나 노래와 勞動이 상호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勞動謠인 경우는 더욱 그렇다. 勞動謠가 노동 속에서 불리어지고 노동하기 위해서 부른다는 固定的인 機能을 갖는다면, 그 唱法과 機能의 관계는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갖게 된다. <김매는 노래>가 김매기를 위해서 부른다는 일정한 機能을 갖는 노래라면, 唱法은 <김매는 노래>의 性格과 機能을 具體化시키는 한 側面일 수 있다. 唱法과 機能과의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인접 학문과 音樂的 研究가 先行되어야 할 것이나, 이는 후일로 미루고자 한다.

1. 唱法

唱者들이 어떤 방법으로 노래하는가의 문제가 民謠의 唱法이다. 鄭東華님은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²⁵⁾

- ① 性別：女唱, 男唱, 男女混成唱
- ② 態度別：坐唱, 立唱
- ③ 組織別：先唱衆答唱, 交換唱, 獨唱, 混合唱

위의 기준에 따르면 <김매는 노래>는 여성 위주의 男女混成唱에 해당하지만, 제주도 김매기는 그 자체가 여성 위주의 노동으로, 남성은 傳承의 기회가 적어 整濟된 사설의 <김매는 노래>를 남성들이 口演하는 예는 비교적 드물다. 態度別로 본다면, 계속되는 김매기 작업과 함께 口演되는 것으로 動的 坐唱에 해당할 것이다. 民謠는 또한 唱者의 조직에 따라 그 唱法이 다를 수 있다. 장시간 여러 사람에게 의해서 이루어지는 노래들은 그 唱法이 산만한 편이나, <김매는 노래>는 비교적 整濟되어 있다. 이것은 김매는 조직원 모두가 같은 동작을 반복하기 때문이다. <김매는 노래>는 다른 노래들과는 달리 獨唱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주로

25) 鄭東華, 「韓國民謠의 史的研究」(潮閣, 1981), pp. 94~97.

先後唱, 交唱으로 노래하는데, 김매기가 주로 집단으로 행해지는 데서 기인한 것이라 생각된다.

1) 先後唱

두 사람 이상이 작업을 할 때 口演되는 형식으로 先唱者가 사설을 부르고 다른 사람이 후렴을 받아 부르는 唱의 형식을 말한다.

- ⑨ A 어기여랑 사아테야
- A 앞명에랑 들어나오라
- 뒷명에랑 나고나가라
- B 어기여랑 사아테야
- A 만경창과 굴숫인밭터
- 요만호민 홀만도흐다
- B 어기여랑 사아테야
- A 모든재꾼 일심을호고
- 골근복작 잘도나멘다
- B 어기여랑 사아테야
- A 콧은병에 다풀아가난
- 어서술술 잘도나멘다
- B 어기여랑 사아테야
- A 선소리랑 구지나망정
- 훗소리랑 느적느적
- B 어기여랑 사아테야
- A 선소리랑 구지나망정
- 훗소리에 요점 짚메지
- B 어기여랑 사아테야

(월자채록. A, 성산읍 난산리, 김묘생, 女·59)

(월자채록. B, 성산읍 난산리, 김정삼, 男·45)

- 語釋 어기여랑 사아테야 (후렴)
- 앞받머럴랑 들어오라
 - 뒷받머럴랑 나아가라
 - 만경창과 넓은밭에

요정도면	한만하다
모든게원	일심하고
골단복작*	살도맨다
곱은알밭머리	다돌아가니
어서술술	잘도맨다
선소리랑	긱을망정
훑소리랑	늦게늦게
선소리랑	긱을망정
훑소리에	요김을매자

A가 의미있는 사실인 선소리를 부르면 B가 받아 후렴만 부른다. 첫 머리에 나오는 ‘어기여랑 사아테야’는 노래를 이끌어내기 위한 導入部로 先唱者(A)가 부른다. 예외이긴 하지만 후렴을 先唱者가 後唱者(B)와 함께 부르는 경우도 간혹 있다. 先後唱에서 先唱者는 매우 중요한 구실을 한다. 先唱者는 작업과 노래를 동시에 이끌어가야 한다는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作業能力이 뛰어나지 못했을 때에는 노래만을 이끄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先唱者는 音樂的인 資質, 記憶力, 創作力이 다른 사람에 비해 뛰어나야 한다. 勞動謠인 경우 전원이 한꺼번에 노래하지 않고 개인이 한 연 또는 한 행을 노래하는데, 여기서 개인의 再創作可能性이 확대된다.²⁶⁾ 가사의 선택은 先唱者에게 달려 있으므로 傳來的인 것을 부르기도 하지만, 先唱者의 創作的 能力, 霧圍機, 狀況의 變化 등에 따라 即興的인 사실을 노래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再創作이 가능하여 사실의 多邊化를 가져올 수 있는 창법이다. 선창자가 가사를 얼른 이어나가지 못할 때는 <김매는 노래>의 慣用句라 할 수 있는 “앞명에랑 들어오라 뒷명에랑 나고나가라”를 불러 餘裕를 갖기도 한다. 후창자들이 후렴 이상을 노래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 창법은 계속되며, 이것은 또한 <김매는 노래>의 가장 일반적인 歌唱方式이다. 작업 집단의 조직에 따라서 先後唱者가 각 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鑑賞者가 되거나, 한 사람이 先唱하면 모든 조직원이 후렴을 받아 부르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 김을 뭉개 생기는 소리와 손놀림의 모양으로, 빨리 때는 모습.

26) Ruth Finnegan. 『Oral poet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p.154.

2.) 交唱

歌唱者들이 사설을 번갈아 부르는 창 의 형식이다. 先唱者와 後唱者로 나누어 가장한다는 점에서는 先後唱과 비슷하지만, 선·후창자가 모두 의미있는 사설을 노래한다는²⁷⁾ 점이 先後唱과 다르다.

10 A B	어긴여랑	사아디야
A	앞땀에야	들어오라
B	뒷땀에야	멀어나지라
A	어느제랑	땀에질가코
B	갈땀보난	멀어서라
A	저지경이	멀다흔들
B	서원보단	멀어서라
A	서울이야	멀다흔들
B	강남보단	더멀리야
A	강남땅이	멀다흔들
B	제비생이가	오고간다
A	어긴여랑	사아디야
B	사아디불렁	요점질메자

(원 자체 북. A, 한림읍 한림리, 고상옥, 女·78)

(원 자체 북. B, 한림읍 한림리, 이봉춘, 女·74)

語釋	앞발머릴랑	들어오라
	뒷발머릴랑	멀어서라
	어느때면	앞발머리갈까
	갈곳은보니	멀었더라
	저지경이	멀다하지만
	서울보다	더멀었겠는가
	서울이야	멀다하지만

27) 張德順外, 「口碑文學概說」(一潮閣, 1976), p.90.

강남보다	더 밋졌는가
강남땅이	밋다하지만
제비새가	오코간다
어긴여랑	사아디야
< 사데 > 불리	요김을매 자

- ①
- | | |
|------------|-------|
| A 어긴여랑 | 서와니야 |
| B 어긴여랑 | 서와니야 |
| A 사데불리 | 요김실메라 |
| B 사데불리 | 요김실메라 |
| A 앞명에랑 | 들어나오라 |
| B 앞명에랑 | 들어나오라 |
| A 밋명에랑 | 물리나나라 |
| B 밋명에랑 | 물리나가라 |
| A 요김실아 | 실긴양말라 |
| B 요김실아 | 실긴양말라 |
| A 곱은쇠(호미)로 | 해내어간다 |
| B 곱은쇠(호미)로 | 해내어간다 |

(필자재록. A, 정산음 오소리, 강청옥, 女 · 83)

(필자재록. B, 정산음 오소리, 한여화, 女 · 61)

語釋 어긴여랑	서와디야
어긴여랑	서와디야
< 사데 > 불리	요김을매라
< 사데 > 불리	요김을매라
앞말머리랑	들어오라
앞말머리랑	들어오라
밋말머리랑	물리가라
밋말머리랑	물리가라
요김아	실긴채말아
요김아	실긴채말아
곱은쇠(호미)로	해내어간다
곱은쇠(호미)로	해내어간다

〈김매는 노래〉의 **갯창** 방식은 사설을 이어나가는 형식에 따라, 앞소리 사설을 이어받아 부르기, 앞소리 사설을 반복하여 따라 부르기, 앞소리와 다른 사설 부르기 등의 세 가지 경우가 있다.²⁸⁾ ⑩은 앞소리 사설을 이어받아 부르기로 A가 1행을 부르면 B가 이어받아 부르는 형식인데 드문 唱法이다. 傳來的인 사설이라 하더라도 창자의 심리 상태, 상황의 변화, 분위기, 기억 등의 문제로 사설의 순서가 바뀌거나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는 주로 앞소리의 낱말이나 이미지의 聯想作用과 連鎖的 表現에 의해 사설을 이어간다. ‘밍에질가코’-‘갈된보난’, ‘멀다’-‘서월’, ‘서월-멀다-강남’, ‘강남-제비’와 같이 연쇄적 표현과 연상 작용에 의해 사설이 이어져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해서 사설을 이어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정한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니다.

⑪은 앞소리 사설을 반복하여 따라 부르는 형식으로, 先唱者(A)가 부르는 사설을 後唱者(B)가 그대로 되풀이하는 가창 형식이다. 이는 後唱者들의 口演能力이 先唱者에 비해 모자라는 경우에 흔히 있는 交唱形式이다.

- | | | | |
|---|---|------|-------|
| ⑫ | A | 검질짓곡 | 고지신밭되 |
| | B | 사디불렁 | 검질메계 |
| | A | 놀레놀레 | 요놀레야 |
| | B | 앞발로랑 | 허우쳐가고 |
| | A | 검질버친 | 사디로다 |
| | B | 뒷발로랑 | 거더차며 |
| | A | 나놀레랑 | 내넘영가라 |
| | B | 요검질을 | 메어나보자 |
| | A | 나놀레야 | 산넘영가라 |
| | B | 산천산천 | 부신산천 |
| | A | 어긴여랑 | 사디로다 |
| | B | 검질튼는 | 산천인가 |
| | A | 앞명에랑 | 허울허울 |
| | B | 어떤년은 | 산천중앙 |



28) 金榮敦, 「濟州島民謠研究」(도서출판조약돌, 1983), pp. 40~44.

A	뒷명에랑	말적말적
B	고운옷광	분칠하곡
A	사더소리	느적느적
B	나명씨명	살건만은
A	김질손은	즈적즈적
B	요내산천	부신산천
A	사더로나	우기어보게
B	김질제운	놀레로다
A	번딧사람	구경종곡
B	산엔가면	꽃생이소리
A	벗된사람	보기 좋게
B	집원들민	정 마레소리

(원자 채록. A, 성산읍 온평리, 박태연, 女 · 75)

(원자 채록. B, 성산읍 온평리, 강옥생, 女 · 62)

語釋	김이질고	이랑긴말에
	<사더> 불러	김을매자
	노래 노래	요노래야
	앞발물랑	허위적이며가고
	김에 부친	<사더>로다
	뒷발물랑	걸어차며
	나노래는	내넘어가라
	요김을	매어나보자
	나노래야	산넘어가라
	산천산천	부신산천
	어긴여랑	<사더>로다
	김을뜯는	산천인가
	앞발머릴랑	허울허울
	어떤년은	산천이 좋아
	뒷발머릴랑	멀리멀리
	고운옷이며	분칠을하고
	<사더> 소리는	늦게늦게
	나면서 쓰면서	살건 마는

김매는손은	자주자주
이내산천	부순산천
<사더>로나	힘써보자
김에부친	노래로다
먼데사람	구경종고
산에가면	꽃새소리
가까운사람	보기 좋게
십에들면	맷돌소리

선창자(A)와 후창자(B)가 번갈아 가며 앞소리와 다른 사설을 부르는 交唱形式이다. 선창자와 후창자가 1行씩 교대로 부르지만 선창자와 후창자의 사설 사이에는 내용상 연관성이 缺如되어 있다. 제각기 나름대로의 사설을 부르고 있다.

앞소리의 사설을 이어받아 부르는 형식에 비해선 이 창법을 더 많이 따른다.

2. 機能

民謠에는 다른 무엇을 위해 부르는 것이 있는가 하면, 다만 부르는 일 자체를 즐기거나 위하여 부르는 것도 있다. 前者를 機能謠라 한다면 後者를 非機能謠라 한다.²⁹⁾ 勞動謠는 노동을 하면서 일을 즐겁게 치르기 위하여 부르는 노래로 機能謠이다. <김매는 노래>는 김매기 작업을 위하여 불리는 것으로, 機能謠라는 사설은 새삼 據論의 여지가 없다.

民謠의 機能은 민요를 부르는 사람들의 組織, 부르는 契機, 부르는 方式 등에서 구체화될 수 있다.³⁰⁾ <김매는 노래>는 밭에서 김을 매는 경우가 아니면 불리지 않는다. 밭이 대부분이며 돌이 많은 제주도의 농토는 瘠薄하기 그지없어 地面이 고르지 않고, 돌맹이가 地表面을 덮고 있는 밭에 쪼그리고 앉아 쏟아지는 曝陽 아래서 온몸을 땀에 적시며, 같은 동작의 힘없는 반복으로, 온 종일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밭이랑을 일정하게 오가면서 이루어지는 김매기는 힘겨운 작업이다.

29) 金榮敦, “민요의 기능과 사설”, 『韓國文學研究入文』(知識産業社, 1982), p.117.

30) 金榮敦, “민요의 기능과 사설”, 위의책, p.116.

13	오유월이	불더위에
	검질짓곡	굴뚝인बाट
	검진은매난	후끈후끈
	발창은	와적와적
	조라움은	무신일고

(필자채복, 태정읍 부릉리, 김희령, 女 · 63)

語釋	오유월의	불더위에
	검이질고	넓은밭에
	검은매니	후끈후끈
	발바닥은	와적와적*
	줄리움은	무슨일인가

⑭	밍에질고	안너른बाट
	검질이엿	매싼보난
	검질은지성	지각하고
	갈적삼입고	앉았더니
	엉덩이는	축축하고
	한나절을	매언보난
	중어어깨	다뺨삼저

(필자채복, 구좌읍 한동리, 고화자, 女 · 50)

語釋	밭머리질고	넓은밭에
	김이라고	맡려고보니
	검은질어	꽂차있고
	감물들인적삼입고	앉았더니
	엉덩이는	축축하고
	한나절을	매어보니
	다리외어깨는	깃뺨는구나

김을 매는 작업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노래이다. ⑬의 노래는 김매기의 계절적 상황과 김매기의 苦役스러

* 무척 뜨거움을 뜻하는 말.

움이 잘 드러나 있다. ⑭는 김매기가 외적 환경에서 오는 고통만이 아니라 육체적 고통을 隨伴하는 것임이 드러난다. 앉아서 김을 매는 것만도 지리하고 고통스러운데, 게다가 오뉴월의 씨약벌과 달아 오르는 地表面의 熱로 몸은 찌는 듯이 덥고 발바닥마저 뜨겁게 한다. 거기다가 졸음마저 찾아든다. 이러한 육체적 고통을 敢耐하면서 변변치 않은 점심 한 끼로 시장기를 메우며 하는 김매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이러한 2중 3중의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을 조금이나마 잊기 위하여 입에서는 자연스럽게 노래가 흘러 나오는 것이다. 노래하는 사이 절로 흥이 생겨 작업의 고통을 노래 속에 묻어버릴 수 있었다. 나아가서, 고난 앞에 결코 敗北하지 않는 제주 여성들의 強靱함과 忍耐를 〈김매는 노래〉는 키워왔다.

김매기는 주로 한 명이거나 수 명 이상의 집단으로 행해지는데, 집단 조직인 경우 연령을 제외하곤 사회·경제적 위치나 삶의 여러 환경적 조건이 비슷한 아녀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同質의 조직이다. 따라서 그들은 共同運命體的인 意識 위에 共感帶를 형성하며 살아왔다. 그러므로, 그들은 노래를 통하여 스스로는 물론 서로 위로받았고, 삶을 재인식하며 鼓舞할 수 있었다. 〈김매는 노래〉는 육체적, 심리적, 작업 능률의 측면에서 그 機能을 종합해 볼 수 있다. 노래는 절로 흥을 돋우어 손놀림은 가벼워지고, 노래 속에 묻히어 김매기의 고통과 지리함을 잠시나마 잊고 즐겁게 일할 수 있었으며, 평소의 생활 감정을 사설화함으로써 생활의 고통에서 오는 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었다. 과거 제주도의 여성들은 집안에 不和가 생겨 고통을 받는 일이 있으면 호미를 들고 밭으로 나갔다. 밭에 나가 일을 하고 노래하면서 답답한 마음을 淨化하고, 삶을 재인식하며, 온갖 역경을 새로운 삶으로 昇華시켜 나갔다. 노래는 또한, 작업을 통제하고 일에 보조를 맞추게 함으로써 작업의 능률을 증진시켰다. 〈김매는 노래〉의 가락은 작업의 동작을 규칙적으로 반복하게 하여 힘이 덜 들게 하며, 흥겨움을 불러일으켜 노동을 즐겁게 유도하였다. 노래를 부름으로써 일을 한결 즐거이 치르게 될 뿐더러 행동이 규칙적으로 이루어져서 덜 지루하고 힘이 덜 드는 것이다.³¹⁾ 作業實態와 情意를 노래한 사실은 작업을 督勵하고 생활의 감정을 해소시키며, 보람있게 살아가

31) Geory List, "Folk Music", Folklore and Folklife, ed. richard M. Dors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2, p.365.

金榮敦, 「濟州島民謠研究」(도서출판조약돌, 1983), p.86. 재인용.

려는 意慾을 북돋운다. 후렴은 조직원 간의 결속을 가져오며 서로 보조를 맞추게 한다. 노래를 부르면서 일하면 심리적으로 즐겁게 되며 질서있게 움직일 수 있어 能率이 증대되는 것이다.³²⁾

이와 같이 <김매는 노래>는 제주 여성들로 하여금 김매기의 고동스러움과 생활의 시름을 잊게 하였다. 나아가, 온갖 역경을 보다 昇華된 諦念으로, 삶 그 자체로 받아들여지게 함으로써 回避가 아니라 정면으로 부딪치며 이겨나가는 運命의 積極的인 受容者로 살아갈 수 있게한 원동력을 제공해 왔다는 데 넓은 의미에서의 機能이 있고, 守分하며 살아갈 수 있는 餘裕를 갖게 하였다.

<김매는 노래>의 사설 내용은 다른 노동요와 마찬가지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노동과 관련되어 作業의 實態를 노래한 사설이요, 둘째는 노동과는 관계없이 노래하는 이의 심정을 드러내는 사설이다.³³⁾ <김매는 노래>의 사설 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앞서의 표4와 같이 作業實態를 노래한 것과 情意를 노래한 것의 구성비는 73.3%와 26.7%로 作業實態를 노래한 것이 情意를 노래한 것에 비해 3:1 정도로 많다. 이것은 김매는 작업이 野外勞動이고 지루하며, 육체적 고동을 수반하기 때문에 노래와 노동이 밀착되는 경우이다. 한편, 앞서의 표3과 같이 <김매는 노래>는 <맷돌·방아노래> <해녀노래>를 제외한 타 노동요에 비해 비교적 民間의 情意를 노래한 비율이 훨씬 높다. 그 이유는 김매기 작업 자체가 고동스럽고 지리한 속에서 이루어지지만, 타작이라든가 나무를 베거나 켜는 작업과 같이 거칠고 사나운 노동을 아니며 구태여 작업을 하는 조직원간의 동작의 통일을 요구하거나, 억세게 되풀이되는 작업이 아니어서 마음의 여유를 어느 정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生活의 情意를 노래한 사설은 자신들이 평소 지니고 있었던 생활의 답답함을 다소나마 淨化하여 唱者나 鑑賞者나 스스로 또는 서로를 위로하며 鼓舞하였다. 그런 가운데 작업의 능률은 오를 수 있었다.

⑬ 검질짓곡	광너른밭의
사대로나	우기말가게
청동그릇	꽃따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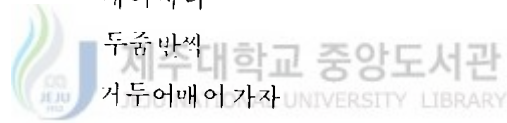
32) 張德順外3, 「口碑文學概說」(一朝閣, 1976), p. 84.

33) 金榮敦, “민요의 기능과 사설”, 「韓國文學研究入門」(知識産業社, 1982), p. 117.

매꿍구든	굽은쇄로
요김살은	여의명가계
너른복에	편개치듯
좁은복에	벼락치듯
어서흔서	매어나지라
흔소리에	두줌반씩
굽은쇄로	여의명가계

(필자채록, 서귀포시 보복동, 한애경, 女 · 72)

語釋 김이갈고	넓은밭에
<사데>로나	헐씩가자
청동같은	칼뚫으로
매밭톱같은	굽은쇠(호미)로
요김을	매어가자
너른복에	편개치듯
좁은복에	벼락치듯
어서빨리	매어지라
흔소리에	두줌반씩
굽은쇠로	거두어매어가자



⑩ 우리어명	날무사난고
검질메렌	날낱던가
나어명은	잘키운아기
놈이집가난	종으로살앙
은가락지	짜던손이
쇄발통이	문뻗고나

(필자채록, 구좌읍 행원리, 오옥녀, 女 · 54)

語釋 우리어머니	날왜낱았는가
김을매라고	날낱았는가
나의어머니는	잘키운아기
남의집가니	종으로살아
은가락지	끼던손이
소의발이	다뻗구나

⑮는 노동과 밀착되어 作業의 實態만을 노래한 사실로 勞動的 機能을 갖는 노래이며, ⑯은 작업과는 직접 관계없이 悽節한 현실과 자신의 처지를 비유적으로 나타낸 사실로 情意的 機能을 갖는 노래이다. ⑯과 같이 情意的 機能을 갖는 노래는 日常의 情意를 노래하기 때문에 그 사실이 流動的이어서 다른 노동요와의 交流가 빈번히 일어난다.

노동요는 唱曲·機能·辭說과의 관계가 밀접한데, 固定的 結合을 '='로, 流動的 結合을 '≠'로 표시한다면, <김매는 노래>는 ⑮의 노래와 같이 作業의 實態를 노래한 경우는 機能=唱曲=辭說이고, ⑯과 같이 日常의 情意를 노래한 경우는 機能=唱曲≠辭說로 정리할 수 있다.³⁴⁾



34) 張德順外3, 「口碑文學概說」(一潮閣, 1976), pp. 79~81.

V. 內 容

〈김매는 노래〉의 내용은 크게 作業實態를 노래한 것과 日常情意를 노래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1. 作業實態

작업의 실태를 내용으로 하는 노래는 대체로 작업의 어려움, 작업의 督勵와 狀況 등을 노래한다. 이러한 내용의 노래는 〈김매는 노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① 앞땀에야	들어오라
뒤핀에야	물러나라
서산마루	해걸려두고
긴풀이랑	깊게매고
짧은풀랑	얇게매면서
앞다투며	매어가자
긴이랑에	앞아서
우느아기	젯도주곡
조낙이영	향여사느네

(필자재록, 한림읍 한수리, 기해생, 女·76)

語釋	앞발머릴랑	들어오라
	뒤패머릴랑	물러나라
	서산마루	해걸어두고
	긴풀일랑	깊게매고
	짧은풀일랑	얇게매면서
	앞다투며	매어가자
	긴이랑에	앞아서

요이랑을	모두매어두고
우는아기	짓도주고
서넛밥도	지어야한다

⑩ 고비칭칭	돌아진밭피
검질메는	조케더라
앞발로랑	허위치명
뒷발로랑	물리치명
흔저흔저	손놀리라
쉬당보문	싫어진다
오유월의	조작벧피
앞엔보난	태산이여
사데호명	매어덜보라

(필자채록, 한림읍 귀덕 2리, 양창순, 女 · 55)

語釋 곱이 칭칭	돌아간밭에
김을매는	소가들아
앞발로랑	허비적대며
뒷발로랑	물리치며
이서어서	손을놀리라
쉬다보면	싫어진다
오뉴월의	피약별에
앞엔보나	태산이네
<사데>하며	매어들보라

⑪ 웨골갱이	조룩심영
검질메는	접군님네
진고지를	다메기든
쉬멍쉬멍	호엄십시
징심사더	넘어간다

(필자채록, 제주시 삼양 1동, 김순옥, 女 · 61)

語釋 쇠호미	차루잡고
--------	------

김을매는	접군님네
긴이 랑을	나매 거든
쉬며 쉬며	하고있으십시오
점심 <사디>	넘어간다

本土와는 달리 밭일의 대부분을 여성들이 해왔으며, 특히 김매기는 여성들만의 일이었다시피 해왔다. 뿐만 아니라 집안의 잔일은 물론이고, 김매기를 끝내고 저녁에 집에 돌아 오면 손발을 제대로 씻을 겨를도 없이 가족들의 저녁 식사를 준비해야 하고, 낮에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피곤함을 느낄 새도 없이 정리를 해야만 하는 가히 숨가쁜 삶이었다. 따라서 품삯을 주는 일이든 이웃과 서로 돌아가며 하는 일이든 자기 밭일을 빨리 끝내고 싶은 것이다. ⑰의 노래와 같이 해는 서산으로 기울어가고 할 일은 아직도 많이 남았다. 가족이든 타인이든 일을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보는 입장으론 다급함이 앞선다. 그래서, 분수도 모르는 언니 등에 업혀 동네 어귀에서 어머니를 애타게 기다릴 아기를 떠올린다. 일을 빨리 마치고 돌아가서 우는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싶은, 일종의 母性的 本能을 자극시킴으로써 일에 박차를 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다급한 마음과는 달리 대단한 餘裕를 볼 수도 있다. 조급한 마음은 다그친다고 해결되는 것만은 아니다. 해는 중천에 떠 있어 일할 시간은 많이 남아 있다. 한 이랑을 매고나면 아픈 허리와 다리도 쉬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일에 能率이 오를 것이라는 순기와 餘裕를 찾아볼 수도 있다. 일에 대한 끈기와 일을 마다하지 않는 도민의 삶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 노래이기도 하다. ⑰⑱과 같은 노래는 그 박자가 빠르게 진행되는데, ‘쫄른사디’인 경우로 날이 저물어 가거나, 일할 수 있는 시간에 비해 작업량이 많이 남아 있을 경우, 아니면 밭머리를 돌아갈 때 일을 빨리 진행시키기 위하여 불려진다. ⑲의 노래는 일을 시작할 때나, 마음의 여유가 있고 시간적인 여유가 많을 때 불리는 것으로, 가락이 느린 ‘진사디’의 경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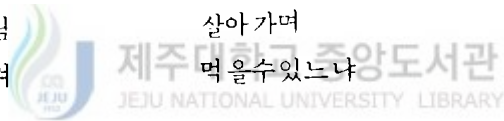
2. 日常情意

⑳ 김질만에문	살아지카
드러눗물	케이사향곡

드룻마눔	향여사향곡
출구덕이	넘어감지
드룻마눔	뉘 상에 놓곡
확확젓엉	먹는맛이
캐기보단	스몯낫다
엇인살림	살아가며
반찬출렁	먹어지느냐

(필자채록, 한림읍 대림리, 김계여, 女 · 65)

語釋	김만매면	살수있을까
	들나물	캐어야하고
	들마늘	해야하고
	작은대 바구니가	넘쳐간다
	들마늘	뉘 상에 놓아
	삭삭섞어	먹는맛이
	고기보다	아주 낫다
	없는살림	살아가며
	반찬 차려	먹을수있느냐



②1	고지질고	굴너 른밧되
	우리 접군	다지쳤고나
	지친 접군	무엇을 주랴
	은이잇엉	은을 주며
	금이잇엉	금을 주랴
	은과금은	철 물이라
	초색백귀	줄게엇네

(필자채록, 성산읍 삼달리, 조산옥, 女 · 71)

語釋	이랑길고	넓은밭에
	우리 접군	다지쳤구나
	지친 접군	무엇을 줄까
	은이있어	은을 주며
	금이있어	금을 줄까

은과금은
조색 밖에

절물이라
줄것이없구나

濟州人의 삶의 역사는 제주도의 地理, 歷史的 背景과 同軌를 이룬다. 제주도의 自然的 惡條件과 3년에 한 번 정도의 食糧難, 疾病으로 도민의 삶은 慘憺한 모습이었다.³⁵⁾ 제주도의 立地的, 自然的 條件은 田作 中心일 수밖에 없으며, 土地는 瘠薄하여 그 주식은 보리와 조이다. 그 위에 참혹한 被壓의 歷史로 點綴된 ‘環海天險의 섬’이다.³⁶⁾ 地力이 좋지않아 농사를 지어도 그 所出이 적어 대대로 零細性에 허덕일 수밖에 별 도리가 없었다.³⁷⁾ 한 해 농사를 짓고 한 해 살아가지가 힘든 지경에 놓였던 것이 대부분 도민의 생활이었다. 삶의 根幹이 되는 衣·食·住의 해결마저 어려운 지경에 놓였던 것이 과거 제주도민의 삶이었다. 그나마 延命의 수단으로 베마른 농토를 일구어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雜草와 돌멩이뿐인 土質로선 농사를 짓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 중 특히 김매기는 고된 농사일 중의 하나로 김매기를 하는 동안 궁핍한 생활이 저절로 노래가 되어 흘러나왔다. 밭에 나가 일을 하면서도 찬거리를 걱정해야 하는 도민의 어려운 생활은 풀릴 날이 없었다. 김을 매고 돌아오면서 뜨는 잠깐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들에 돌아난 나물과 달래를 캐어 찬거리를 장만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삶의 연속이었다. 밭에 돌아난 나물밖에는 남에게 베풀 것이 거의 없는 빈궁한 삶이었다. 그러나, 여기에 보다 중요한 것은 달래를 넣고 버무린 된장이 유일한 찬거리이지만 고기보다 훨씬 맛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용기와 守分의 자세이다. 결코 敗北하지 않고, 悽絶한 運命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하면서 이를 超克하여 나갔다. 생활의 온갖 悲哀를 노래 속에 溶解시켜 조절하며, 분수를 지키고, 성실하게 살았던 濟州人의 숨결이 <김매는 노래> 속에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다.

35) 姜景濬, “濟州道の 農耕方式(農法)에 대한 比較研究 上”, 「耽羅文化」 創刊號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982), pp. 89~92.

36) 金榮敦, “濟州島 民謠에 드러난 生活觀”, 「知愚邊時敏博士 回甲紀念論文集」 (同刊行委員會, 1978), pp. 465~472.

37) 梁淳玟, “濟州島 流配歌辭에 나타난 生活相”, 「濟州大學校論文集」 第17輯 (제주대학교, 1984), p. 54.

22) 우리어멍	날날 적엔
어떤 날에	날날 던코
해도 들도	웃인 날에
싫은어멍	날나 놓코
죽을고생을	다하느냐
요검질광	날날던날은
웃어서도	깨무던허주

(필자채록, 제주시 외도동, 강정옥, 女 · 54)

語釋	우리어머니	나를 날뻐
	어떤날에	나를 낳았던가
	해도달도	없는날에
	싫은어머니	나를 낳아놓고
	죽을고생을	다하느냐
	요검과	날날은날은
	없어서도	꽤 좋을것이다

23) 설운어멍	날무사난고
놈날날에	나도나시문
시름놓앙	점잔으걸
베씩마른	서드레 밧되
눈물지운	검질손여

(필자채록, 구좌읍 한동리, 강치우, 女 · 80)

語釋	싫은어머니	날뻐 낳았는가
	남이 낳은날에	나도 낳았으면
	시름을놓고	점잔을걸
	바싹마른	서드레 밧에
	눈물진	김매는손이다

나는 어떤 팔자로 태어났기에 이다지도 고생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運命의 빛도 없는 기박한 날에 나를 낳고, 그 팔자로 하여 죽을 고생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팔자가 너무나 기박하여 雜草와 자신을 同格化하며, 잡초와 자신이 낳던 날은 없어도 좋았을 것이라는 悽絶한 몸부림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래는 팔자의 탄식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세를 어쩔 수 없는 팔사 소관으로 돌리고, 諦念으로 이겨나가려는 自彊의 意志도 숨어 있다.

<김매는 노래>를 現實의 갈등과 心理的 切迫感의 緩衝役으로 삼으며 세수의 여인들은 살아왔다. 이것은 제주 여인들의 強點이기도 하다.

㉔	해는보난	서산마루
	작대기나	잇어시민
	지는해를	바쳐놓고
	요검질을	모다매걸

(필자채록, 표선면 하천리, 고대선, 女 · 64)

語釋	해는보니	서산마루
	작대기나	있었으면
	지는해를	바쳐놓고
	요검질을	모두매걸



㉕	놀다죽으나	미다죽으나
	죽어서가면	씩을제기
	산때나미당	씩어나가자
	우리ㄴ찌	나이가들엉
	너를버칭	뒤물릴말가
	매당말민	놈이나웃나

(필자채록, 남원읍 남원리, 오순녀, 女 · 75)

語釋	놀다죽으나	미다죽으나
	죽어서가면	씩을고기
	살아있을때 미다가	씩어가자
	우리 같이	나이가들어서
	너를겨워	뒤로미루겠느냐
	매다가그만 두면	남이웃는다

逼迫과 困窮 속에 살아야 했던 제주 여인의 억척스러움을 實感할 수 있는 노래들이다.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敗北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강한 生命力으로 昇華시켜 나가는 제주인의 슬기는 勤勉의 바탕에서 產出된 것이다. 이러한 도민의 勤勉性은 그들 자신에게 自立할 수 있는 자신감을 안겨 주었고, 自立의 意志와 勤勉性은 相互補完的 관계로 작용하며 ‘自彊不敗’의 강인한 精神力을 키워왔다. 생활의 惡條件은 自給自足하는 생활이 강제되어 사회는 停滯되고 후진성을 가져오기도 하였지만³⁸⁾, 오히려 주어진 여건에서 敗北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터득하게 하였으니 이것이 濟州島民의 生活哲學으로서의 勤勉性이다. 이것은 생활 환경이 性情을 形成하고 生活態度와 生活觀을 마련하기 때문이다.³⁹⁾

㉔는 寸陰도 아끼는 도민의 勤勉性을 드러내고 있다. 지는 해를 받칠 수 있는 작대기라도 있었으면 해를 받쳐놓고 일을 계속하겠다는 勤勉함을 볼 수 있다. ㉕의 노래는 어차피 한 번 죽을 인생이라면 열심히 살다 가는 것이 보람있는 인생임을 自覺하고 있는 노래이다. 힘에 겹다고 결코 미룰 수 없다는 강한 意志가 엿보이며, 하다가 그만두면 게으른 사람이라고 남들이 웃는다는 勤勉한 島民性을 그대로 표현한 노래이다. 편안한 삶을 살았거나, 업신여김을 당하여 고통속에 살았거나 인간의 죽음의 運命은 같은 것으로 파악하고, 그렇다면 勤勉한 삶을 택하겠다는 勤勉性은 도민의 現實的 生活哲學이었음을 <김매는 노래>는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濟州島民이 결코 敗北하지 않고, 강직하게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勤勉性 때문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㉔	검질 짓고	굴너른밭의
	소리로나	우경가자
	앞밭로랑	허우지명
	뒷밭로랑	거뒤편명
	홀저메게	요김질을
	호당말민	놈이나웃나
	너미놀민	유네가똥다
	날더웁덩	놀아불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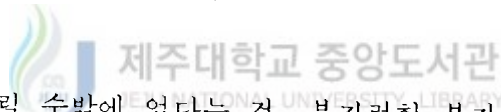
38) 梁淳玟, “濟州流配歌辭에 나타난 生活相”, 『濟州大學校論文集』 第17輯 (제주대학교 1984), p. 54.

39) 金榮敦, “濟州島 民謠의 勤勉性”, 『제주도』 제43호, (제주도, 1970), pp. 191~192.

저술들문	끓엉산다
부지런공	부재사름
하늘님도	못막는다

(필 자채록, 성산읍 수산리, 이연화, 女 · 77)

語釋	김이 짙고	넓은밭에
	노래로나	힘써가자
	앞밭물랑	허비적거리며
	뒷밭물랑	걸어차며
	어서매게	요김을
	하다가만두면	남이웃는다
	너무놀면	유녀가된다
	날이덥다고	놀아버리면
	겨울이되어	끓어서산다
	부지런공	부자사람은
	하늘님도	못막는다



놀아서는 결국 끓주릴 수밖에 없다는 것, 부지런한 부자는 하늘도 못 막는다는 勤勉性은 흡사 宗教的 信念과도 같다. 물론, 그날 그날을 延命하고 가난과 박해 속에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勤勉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에서 강제된 勤勉性은 오랜 세월의 흐름 위에서 하나의 島民性으로 굳어졌으며, 위의 노래들은 바로 그러한 島民의 性情을 표현하고 있다. 本島에 여자가 많다고 함도 그 수에서보다는 勤勉한 活動性에 있다 함이 옳을 것이다.⁴⁰⁾

〈김매는 노래〉 속에는 愛情을 노래한 사설도 간간이 보인다.

㉞	요김질을	훈저매영
	검질맨쿰	말아당은
	빙든남켄	훈저낮게
	약을사당	구완허리

40) 秦聖麒, “三다가 빚어낸 島民의 態度”, 『제주도』 제4호 (제주도 1962), pp. 95~96.

(필자재록, 한림읍 옹포리, 김영옥, 女·68)

語釋	요김을	어서매어
	김맨 품삼	말아다가
	병든 남편	이시냇계
	약을 사다	구완하리

약을 살 經濟的 與件조차 못되는 생활 속에서도 정성으로 救援하려는 傳統的 女人네의 모습과 시어미로서 갖는 사랑의 깊음을 되새기 볼 수 있는 노래다. 他人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愛情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생활에 대한 사랑, 事物에 대한 愛情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며, 이것은 生活苦 속에서도 스스로 挫折하지 않을 수 있었던 힘이 아닌가 생각된다. 남편에 대한 獻身的인 사랑은 하나의 보람이며, 그 보람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 온 제주 여인들의 일면이 드러난 노래이다. 한편, 남편에 대한 사랑과 遠望의 노래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傳統的 情緒라고 하는恨과도 相通하는 점이라 하겠다.

28	오유월을	뵈렷말라
	정침원이	한더위더라
	앉아시민	님이오카
	누어시민	님이오카
	동지실들	진진밤이
	눈물지명	세웠더라
	앞명에랑	들어오카
	뒷명에랑	나고가라
	눈물지운	검질손도
	님이떠난	맞이로다

(필자재록, 구좌읍 하도리, 임춘열, 女·84)

語釋	오뉴월을	뵈나고말아라
	정침원이	한더위더라
	앉았으면	임이올까
	누웠으면	임이올까

동시선달	긴긴밤이
눈물지며	새웠더라
앞발머릴랑	들어오고
뒷발머릴랑	나아가라
눈물지며	김매는손도
임이떠난	탓이로다

자신을 버리고 떠나버린 임을 怨望은 커녕,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라는 간절한 그리움과 사랑이 여울지며 기다림으로 가득찬 노래다. 모든 일이 임이 떠남으로 해서 意味가 없어진다는 韓國的 女人의 사랑과 그리움의 모습이 眞實하게 表現된 노래로, 어느 記錄文學의 抒情詩와도 比肩될 수 있는 노래이다.

㉔ 검질짓꼭	물너른밭터
조라움이	벗이로고나
벗이지집	상보는양반
쌍놈이나	진배엇다
오른것을	호염서사
그게 참말	양반이여



(원자재 목, 성산읍 오조리, 강순팔, 女·75)

語釋 김이질고	넓은밭에
줄리움이	벗이로구나
벗의계 집	상보는양반
쌍놈이나	진배없다
옳은행동을	하고있어야
그게 참말	양반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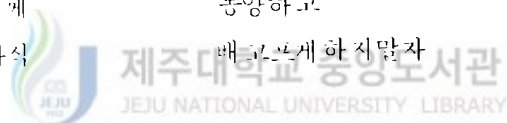
우리 사회의 질서를 維持시키는 기능으로 強制的인 法과 非強制的인 倫理와 慣習이 있다. 그런데, 우리의 先人들은 法에 의한다기보다 自律的인 道德과 慣習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 道德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을 때는 언제 어디서나 假借 없는 叱責이 가해졌다. 이 노래는 겉으로는 양반의 바람기를 叱責하며, 裏面的으로는 삶의 正道를 걷는 것이 참다운 삶이며, 인간의 道理라는 삶의 眞實을 노래

한 것이라 여겨진다. 이것은 생생한 삶의 現場에서 體得된 도민 생활의 한 眞面目이며, 어려움 속에서도 참된 삶을 渴求하던 도민의 善性을 잘 表現한 노래이다.

30	빙구실낭	그늘에는
	어린새 끼	새와나뵈
	요김질을	흔저메사
	올가실엔	풍년돼영
	부모님네	봉양하곡
	우리조식	골리지말게

(필자재록, 제주시 화북1동, 장순경, 女·80)

語釋	빙구슬나무	그늘에는
	어린 자식	삼새워놓고
	요김을	어시매야
	올가을엔	풍년 되어
	부모님께	봉양하고
	우리 자식	배고르게 하지말자



31	바당ㄱ씨	밭갈아농고
	존뵈ㄱ씨	종사랑세워
	농앗지농	김질메명
	웃인 부모	생각난다

(필자재록, 한림읍 한림리, 고상옥, 女·78)

語釋	바다같이	밭갈아농고
	산별 같이	종사랑세워
	농앗혀농고	김질매며
	웃는부모	생각난다

③①은 우는 자식을 돌볼 겨를도 없이 열심히 일을 하는 勤勉性과 함께 풍년이 들면 자신보다는 부모나 자식을 먼저 생각하는 犧牲과 孝道, 母情을 표현한 내용의 노래다. 풍년에 대한 기대 또한 강하게 담고 있는 노래이다. ③②의 노래는 生

活苦 때문에 부모님께 孝道할 수 없었던 지난 날의 가슴 저미는 悔恨을 사실적으로 나타낸 노래이다. 이러한 노래는 어느 記錄文學에 못지않게 子息으로서 父母에 대한 情과 그리움을 民衆의 순수한 마음으로 표현한 노래이다.

스
 ㉔ 김실짓곡 굴늦인밭되
 비운날에 웨 상제 올듯
 혼재검실 웬말이나
 나인심이 얼마나하민
 오유월검질 나혼자베리

(필자재록, 한림읍 동명리, 김인길, 女 · 79)

語釋 김이질고 넓은밭에
 비운날에 외 상주 올듯
 혼자김이 웬말이나
 내인심이 얼마나하면
 오유월검을 나혼자뻬까

자신이 그동안 이웃들에게 情을 베풀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뜨거운 여름 날 혼자서 김을 맷다는 自歎이며, 눈물어린 뉘우침이고, 이웃과의 相扶相助가 구체화된 노래이다. 相扶相助하는 도민들의 생활 의식이 이 한 편에 압축되었다고 해도 과장된 표현은 아닐 것이다. 물론 김매기 작업에서만 相扶相助가 있는 것은 아니고 도민 생활 전반에 깔려있는 相扶相助의 정신이 <김매는 노래>로 표현된 것이다.

도민들은 어려움이 있거나 경사가 있거나 늘 서로 돕고 協同하며 살아왔다. 그 이유는 本土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이라는 지리적 조건과 토질이 박하고 기후가 고르지 못한 풍토적 조건, 관리들로부터의 박해와 외세의 침입 속에 살아야 했던 역사적 조건 속에서 어찌면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 싶은 同病相憐의 아픈 情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또 하나, 聚落의 구조가 밀집되어 있어 이웃과의 相扶相助는 필연적이었을 것이다.

IV. 俗談과의 交流

俗談과 民謠는 民衆들에 의해 그들의 생활 속에서 하나의 生活哲學的 眞理와 智慧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우리 俗談은 우리 민족의 智慧가 오랜 생활 경험을 완벽한 언어 표현 속에 응결시킨 것들이어서 아마도 眞理의 闡明이 아닌 것이 없으며, 대부분은 哲理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⁴¹⁾ 民謠 역시 민중의 생활 현장에서 일어나고 생각하는 것을 모두 읊어 자연적으로 생성, 발전된 것이다.⁴²⁾ 그러기에, 민중의 생활 속에 살아 있으면서 民衆을 規律하고 鼓舞하며 그들의 생활관 일체를 반영해온⁴³⁾ 것이라는 口碑文學的 共通點을 가지고 있어 그 넘나듦이 頻繁하게 된다. 民謠와 俗談의 交流가 頻繁한 이유로는 다음의 몇 가지를 들 수 있다.⁴⁴⁾

첫째, 민요와 속담은 다같이 非專門的인 民衆의 所産이라는 점.

둘째, 민요와 속담은 그 형태가 짧다는 점.

셋째, 속담이나 민요는 다같이 민간의 생활상과 민간 지혜의 總和라는 점.

넷째, 속담과 민요가 일상 생활에서 볼 수 있고 이용하는 사물을 세재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共通性이 民謠와 俗談의 交流를 가져 왔으며, 勞動謠의 하나인 <김매는 노래>와 俗談과의 交流도 이러한 脈絡에서 그 넘나듦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㉓ 김질짓곡	꿀너른밭디
사데불렁	검질메라
뒷멍에랑	나고가라

41) 李基文, 「韓國의 俗談」 二星文庫 84 (三星美術文化財團, 1976), 머리말.

42) 鄭陳華, 「韓國民謠의 史的研究」 (一潮閣, 1981), p. 10.

43) 金榮敦, “제주도 민요에 드러난 생활관”, 「知愚 邊時敏博士 紀念 論文集」 (同刊行委員會, 1978), p. 461.

44) 金榮敦, “民謠와 他口碑文學과의 交流”, 「濟州大學校論文集」 第10輯 (濟州大學 1978), pp. 24~27.

한소리에	한줌반씩
두소리에	두줌반씩
백짓장도	맛들른났다
느네흔져	모다들멍
요검질을	모다케게
둥녕바치도	부지런하민
더운밤을	얻어먹나
더운훈날	요검질놀민
저슬들민	열흘굶나

(필자채록, 성산읍 신산리, 김경옥, 女 · 84, 가점필자)

語釋	김이질고	넓은밭에
	<사데> 불러	김을매라
	뉘발머릴람	나아가라
	한소리에	한줌반씩
	두소리에	두줌반씩
	백짓장도	맛들면났다
	너희들어서	모아들며
	요김을	모두매자
	거지도	부지런하면
	더운밤을	얻어먹나
	더운하루	요김을놀면
	겨울들면	열흘굶는다



방점의 구절은 속담으로, 속담 두 수가 민요 한 편에 끼어든 경우이다. 이는 전국적인 분포를 가진 속담으로古今을 통하여 민중들 사이에 널리 共感되어 온 속담이다. 평소 생활 감정으로서의 속담이 <김매는 노래>의 사실 속에 자연스럽게 끼어든 경우로 도민 생활 전반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㉔	요내몸은	무신거태왕
	검질손에	타령인고
	열질물은	물속이야
	치흠여흠을	알건마는

한 집 산양	님이 속물랑
철썩간장	다타더라
사데나불렁	검질매병
시름이나	잊혀볼까

(필자채록, 한림읍 옹포리, 장효행, 女·71, 가점필자)

語釋 이내 몸은	무엇에 타고나서
김매는손에	타령인가
열질물은	물속이야
깊고얕음을	알수있지만
한집에살아도	임의속물라
철썩간장	다타더라
<사데>나불러	검을매벼
시름이나	잊어볼까

이 노래는 가락을 맞추기 위하여 형태가 조금 변형되었고 내용도 좀 달라졌으나 全國적으로 分布되어 있는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이 한편의 <김매는 노래>를 낳은 경우이다. 속담이 갖는 現實性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네의 안타까움을 자연스레 表現하며 交流되고 있다.

㉔ 나어명은	그리는아기
놈은주난	종으로민다
은가락지	끼던손에
고분쇠가	웬말이나

(필자채록, 성산읍 시흥리, 부계현, 女·80, 가점필자)

語釋 나의어머니는	그리는아기
남은주니	종으로민다
은가락지	끼던손에
고분쇠(호미)가	웬말이나

방점의 “나 어머은 그리는 아기 놨은 주난 종으로 민다”라는 속담 한 수가 <김매는 노래> 속에 끼어든 예이다. 친정에선 금이야 옥이야 자라온 자신이지만, 봉건적 관습에 얽매어 살아야하는 시집살이는 고통스럽기 그지없는 삶이었다. 여인으로 태어난 것을 운명으로 생각하며 살아왔던 제주 여인의 모습을 담고 있는 속담이 <김매는 노래>와 함께 불리고 있다.

속담이 민요 속에 流入되는 경우는 첫째, 속담이 그대로 민요 한 편으로 불리어지는 경우, 둘째, 한 수 또는 두 수 이상의 속담이 민요의 일부분으로 끼어드는 경우, 셋째, 속담이 지니고 있는 뜻이 민요 속에 溶解되면서 原意는 같지만, 扮裝된 표현으로 나타나는 세 가지 형태가 있다.⁴⁵⁾ <김매는 노래>의 경우는 위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 수 또는 두 수의 속담이 노래의 일부분으로 끼어들며 제주 여인들의 性情을 드러내고 있다.



45) 金榮敦, “民謠와 他口碑文學과의 交流”, 위의 책 p. 27.

Ⅶ. 結 語

濟州島의 特殊한 自然的 環境으로 農土는 대부분 돌맹이가 至賤으로 깔려있는 밭이며, 도민의 主穀은 보리와 조였다. 제주도의 김매기는 주로 보리와 조 농사의 김을 매는 밭매기를 말한다. 밭에 김을 매는 作業은 제주 여인들의 배농을 수 없는 일거리 중의 하나였으며, 밭에 김을 매면서 부르는 제주도의 <김매는 노래>는 곧 <밭매는 노래>를 이른다. 그 노래는 사회 구조의 변화로 일부 老人들에 의해 傳承되고 있다. 이제까지 論議되었던 내용을 다음과 같이 要約하여 結論으로 삼고자 한다.

1. 김매기는 혼자서도 하지만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김매는 노래>는 이 때 불리어진다. 노래와 作業은 '익은녘'이라고 하는 先導者에 의해 主導되는데, 대체적으로 作業 대형의 왼편 앞쪽에 위치한다.

2. 제주도 민요의 主種은 勞動謠인데, <김매는 노래>는 본도의 地理的·風土的 與件으로 <맷돌·방아노래>·<해녀노래>와 함께 濟州島 勞動謠의 根幹을 이루고 있으며 女性 爲主의 勞動謠이다.

3. <맷돌·방아노래>·<해녀노래>를 제외한 他 勞動謠에 비해 그 量이 越等하고, 사설의 내용은 作業實態를 위주로 한 것과 民間의 日常情意를 위주로 한 사설로 大別될 수 있다. 그 비율은 3:1 정도이다. 作業實態를 위주로 하는 노래가 그렇지 않은 것에 비해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野外勞動이며, 연중 행해지는 作業이 아니므로 整然한 사설의 傳承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日常의 情意를 노래한 사설은 삶의 哀歡, 勤勉, 愛情, 警世, 家族, 協同等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4. 명칭은 '사디(사데)소리'라고 하며, 가락이 悠長하게 흐르는 노래를 '진사디', 짧은 노래를 '쫓른사디'라고 한다. '진사디'는 가락이 느린 후렴만을 반복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일을 시작할 때이거나, 분위기와 흥을 돋우기 위한 경우에 노래한다.

5. 제주도가 同一한 生活圈이기 때문에 全島에 걸쳐 고르게 分布되어 있으나,

성산읍 난산리에 '아웨기 소리', 성산읍 난산리, 표선면 성읍리에 '홍애기 소리'가 <김매는 노래>로 分布되어 있고, 특이한 경우로 남원읍, 성산읍, 표선면 일부 지역에서 '서우젓소리'의 가락이 <김매는 노래>로 불리고 있다.

6. 唱法은 다른 노래들과는 달리 作業의 성격상 獨唱은 거의 찾아 볼 수 없고 先後唱·交唱의 形式이 있는데, 先後唱은 가장 一般的인 歌唱 形式이다. 그것은 심리적, 육체적, 作業의 능률적 측면에서 機能을 하기 때문이다.

7. 唱者에 따라 그 사설이 다양하게 변하여 완전히 同一한 各篇은 흔하지 않으며, 同一한 人物들이 여러 가지 일을 連續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勞動謠와의 交流가 간혹 보인다. 다른 지방 민요와의 交流는 微微한데, 이것은 제주도 <김매는 노래>의 固有性을 말해주는 것이다. 반면 俗談과의 交流現象은 뚜렷하다.

8 <김매는 노래>는 도민의 性情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 도민의 勤勉性이 노래 篇篇에 살아 숨쉬고 있다. 또한, 이것은 도민의 삶을 지탱해 온 삶 그 자체이기도 하다.

요컨대, <김매는 노래>는 현대 문명의 물결 속에 급격한 생활 여건의 변화로 口演과 傳承의 기회가 점차 줄어들고, 현대인의 민요에 대한 無關心으로 그 傳承이 中斷의 위기에 놓여 있어 자료의 수집과 보존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매는 노래>의 構造的이고 立體的인 研究를 위해서는 音樂的인 側面의 研究와 아울러, 作業의 律動·韻律·表現, 本土 民謠와의 比較研究, 더욱 철저하고도 시급한 資料調査 등이 앞으로의 과제로 남는다. 이러한 과제가 해결될 때 비 <김매는 노래>의 全貌가 確然하게 드러날 것이다. 本稿의 未盡한 부분에 대해서는 稿를 달리해서 계속 研究하고자 하며, 本稿를 통하여 <김매는 노래>와 도민 생활의 모습을 한 단면이나마 볼 수 있었음을 큰 所得으로 여기며 自慰해 본다.

參 考 文 獻

1. 著 書

- 1) 高晶玉. 「朝鮮民謠研究」. 首善社, 1949.
- 2) 金承燦. 「韓國口碑文學大系」6-3.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4.
- 3) 金烈圭 外. 「民談學概論」. 一潮閣, 1982.
- 4) 金榮敦. 「濟州島民謠研究 上」. 一潮閣, 1965.
- 5) _____. 「濟州島民謠研究」. 도서출판조약돌, 1983.
- 6) _____. 「濟州島民謠의 特色」. 濟州大學國語國文學 研究室, 1964.
- 7) 金泰能. 「濟州道史論攷」. 世起文化社, 1982.
- 8) 金東旭. 「韓國民謠의 研究」, 乙酉文化社, 1961.
- 9) 朴桂弘. 「韓國口碑文學大系 4-2」.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1.
- 10) 徐大錫. 「韓國口碑文學大系 2-2」.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1.
- 11) _____. 「韓國口碑文學大系 2-6」.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4.
- 12) _____. 「韓國口碑文學大系 1-2」.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0.
- 13) 成耆說. 「韓國口碑文學大系 1-5」.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1.
- 14) 李基文. 「韓國의 俗談」三星文庫 84. 三星美術文化財團, 1976.
- 15) 鄭尙卞·柳鎮穆. 「韓國口碑文學大系 8-1」.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0.
- 16) _____. 「韓國口碑文學大系 8-2」.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0.
- 17) 曹喜雄. 「韓國口碑文學大系 1-1」.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0.
- 18) _____. 「韓國口碑文學大系 1-4」.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1.
- 19) _____. 「韓國口碑文學大系 1-9」.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4.
- 20) 池春相. 「韓國口碑文學大系 6-2」.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1.
- 21) 崔正如·姜恩海. 「韓國口碑文學大系 7-4」.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0.
- 22) _____. 「韓國口碑文學大系 8-5」.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1.
- 23) 崔來沃. 「韓國口碑文學大系 5-1」.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0.

- 24) 玄容駿·金榮敦, 「韓國口碑文學大系 9-1」,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0.
- 25) 제주도, 「제주도통계연보」, 제주도, 1983.
- 26) 任東權, 「韓國民俗學論攷」, 集文堂, 1981.
- 27) _____, 「韓國民謠集」, 東國文化社, 1961.
- 28) _____, 「韓國婦謠研究」, 集文堂, 1982.
- 29) _____, 「韓國民俗研究」, 二友出版社, 1980.
- 30) _____, 「韓國民謠研究」, 二友出版社, 1980.
- 31) _____, 「韓國民謠史」, 문음사, 1964.
- 32) 李杜鉉·張壽根·李光奎, 「韓國民俗學概說」, 普成文化社, 1982.
- 33) 張德順 外, 「口碑文學概說」, 一潮閣, 1976.
- 34) 鄭東華, 「韓國民謠의 史的 研究」, 一潮閣, 1980.
- 35) 趙東一, 「敘事民謠研究」, 啓明大出版部, 1970.
- 36) _____, 「구비문학의 세계」, 새문사, 1981.
- 37) 秦聖麒, 「南國의 民謠」, 正音社, 1977.
- 38) _____, 「濟州民俗의 멋」, 悅話堂, 1979.
- 39) 「韓國民俗大觀」 제6권, 高大民族文化研究所, 1981.
- 40) 黃沮江 外, 「韓國文學研究入門」, 知識產業社, 1982.
- 41) Ruth Tinnegan, Oral Poet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 42) Richard M. Dorson, Folklore and Folklif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2.

2. 論 文

- 1) 姜景濬, “濟州道の 農耕方式(農法)에 대한 比較研究(上)”, 「耽羅文化」 創刊號,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982.
- 2) 姜昌赫, “濟州島民의 性格”, 「제주간호전문대학교 논문집」 제4집, 제주간호전문대학, 1978.
- 3) 高在奐, “濟州島의 여성 속담”, 「국어국문학」 86, 국어국문학회, 1981.
- 4) 金善豐, “俗談에 나타난 民族性”, 「韓國民俗學 5」, 民俗學會, 1984.

- 5) 金榮敦. “濟州島民謠研究”, 「韓國言語文學」 제15집. 한국언어문학회, 1977.
- 6) _____. “濟州島民謠의 位相”, 「교육제주」 제18호. 제주도교육위원회, 1972.
- 7) _____. “濟州島 민요 맺돌·방아노래”, 「國語國文學」 82. 국어국문학회, 1980.
- 8) _____. “民謠의 機能과 사설”, 「韓國文學研究入門」. 地識産業社, 1982.
- 9) _____. “濟州島民謠에 드러난 生活觀”, 「知恩邊時敏博士回甲紀念論文集」. 同刊行委員會, 1978.
- 10) _____. “濟州島 民謠와 현실성”, 「제주도」 제15호. 제주도, 1964.
- 11) _____. “濟州島 民俗學의 오늘과 내일”, 「제주도」 제6호. 제주도, 1962.
- 12) _____. “民謠와 他口碑文學과의 交流”, 「濟州大學論文集」 제10집. 제주대학, 1973.
- 13) _____. “濟州島 民謠의 勤勉性”, 「제주도」 제43호. 제주도, 1970.
- 14) 金榮敦·申幸澈·姜榮峯. “解放後濟州研究概觀”, 「탐라문화」 창간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2.
- 15) 朴鍾烈. “각설이 타령 研究”,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1979.
- 16) 송정언. “제주도 민요의 가락에 대한 고찰”, 「교육제주」 제25호. 제주도교육위원회, 1973.
- 17) 梁淳秘. “濟州流配歌辭에 나타난 生活相”, 「濟州大學校論文集」 제17집. 제주대학교, 1984.
- 18) 梁重海. “濟州島民의 食생활”, 「제주도」 제4호. 제주도, 1969.
- 19) 이 근. “제주도민의 자립정신”, 「제주도」 제43호. 제주도, 1970.
- 20) 임헌도. “제주도 여성의 「嘆息謠」 고찰”, 「제주도」 제24호. 제주도, 1965.
- 21) 좌영조. “한국민요의 연구”, 석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1965.
- 22) 秦聖麒. “三多가 빚어낸 民謠의 態度”, 「제주도」 제43호. 제주도, 1970.
- 23) 玄平孝. “탐라정신탐구”, 「제주대학교논문집」 제11집. 제주대학교, 1979.
- 24) 田申初夫. “民謠の哲學的考察 に其づく組織體系構成”, 「民謠의 研究」 한국고전비평집(최철·설성경 엮음). 正音社, 1984.

Abstract

A Study of "Kimmeraenun Norae" in Cheju island

Kang Song-kyun

Korean Language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im Young-don

The farmlands of Cheju island are mostly dry fields which have a good many stones because of the particularity of its natural surroundings, and the main cereals of its people are barley and millet. In this island, "Kimmeraegi" (picking weeds) means "Patmaegi" (weeding a dry field where barley or millet grows). Picking weeds out of a dry field was among the indispensable jobs that women in Cheju have to do, so that the song "Kimmeraenun Norae" (weeding song) is sung when people pick weeds out of a dried field. The song is sometimes called "patmaenun Norae" ('picking weeds out of a dry field' song), too.

The results of a study about "Kimmeraenun Norae", which can be heard only by old people owing to the change of the way of living are as follows.

1. The song "Kimmeraenun Norae" is sung when weeding is done mostly by group although weeding is done by one person. The song and the work is guided by the leader called "Igünnŷok" who has a position on the left in front of the working order in weeding.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May, 1986.

2. In Cheju island, the folk song consists in great part of "Nodongyo(labor song)", which "Kimmerun Norae" lies at the root of, with "Mattol Panga Norae(grinding mill song)" and "Haenyŏ Norae (woman diver song)". It is also women-oriented labor song.

3. There are far more weeding songs than the other labor songs except "Mattol Panga Norae" and "Haenyŏ Norae". Accordong to the contents of its story, we can classify into two forms: songs dealing with the actual working condition an songs, with the popular emotion in daily life. They are in the ratio 3:1 because the work is done outdoors and is not always done all through the year and because it is difficult to hand down the story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4. "Kimmerun Norae" is also called "Sadi(Sade) sori", which consists of "Chinsadi" and "Tchorŭnsadi". "Chinsadi" is a song which has a long melody and "Tchorŭnsadi" is a short song. There often appear the cases that the refrain is merely repeated in "Chinsadi" in order to start the work or to add the pleasure and stimulate the atmosphere.

5. Although "Kimmerun Norae" is scattered all over this island, "Awegisori" is sung at Nansan-ri Sŏngsan-ŭp, and "Hongwegisori", at Nansan-ri Sŏngsan-ŭp and Sŏngŭp-ri Pyosŏn-myŏn, as a weeding song. In addition, it is particular that the melody of "Soujet Sori" joins with "Kimmerun Norae" at some regions of Namwon-ŭp, Sŏngsan-ŭp and Pyosŏn-myŏn.

6. There are few solos in character of the work. Instead, there are two ways that people sing: one is the way that all people sing the refrain in Chorus after the leader sing a story, and the other, the way that two persons sing a story alternatively and at this time the other people listen carefully. The former became more usual form because of people's psychologic and physical aspect and the effective aspect of work.

7. Because the stories of weeding songs have changed variously by the singer, the exactly same stories can scarcely be found anywhere in Cheju

island. And we can notice the interchange with the other labor songs once in a while because the same persons have to do various kinds of work. Weeding song is little interrelated with the folk song of the main-land. This means a pure characteristic of “Kimmeren Norae” of Cheju island. But, on the other hand, the interchange with proverbs seems to be obvious.

8. “Kimmeren Norae” is a mirror that reflects people’s character in this island. Especially we could feel their diligence in each phrase of the song and it is also the life itself.

